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在外同胞를 想함
굿은 連帶의 힘이 잇스라

一

해가 밧귈때마다 東西各處에 散在한 同胞들의 安否가 我等의 머리에 더욱 새롭게 念慮되다。海外에잇는 同胞들이 또한 故土를 생각하고 兄弟를 생각하고 ... 넘고 바다를 건너 ... 胞愛의 심마리가 ... 然한 一致點에 ... 族의 高議은 高揚되고 民族의 발할것이다 그러나 受難에서 受難의 길을 거러온 海外同胞가 새로 맛는 이해에 過去의 모든 不幸한 境遇에서 버서나 새로운 環境에서 버서나 ... 의 足場을 맨들고 굿건한 步調로를 넘엇는 目標로 向하야 行進하는데 잇서서는 海外在住同胞들의 不斷한 集團的努力이 잇서야할것은 勿論이지마는 이에는 朝鮮內地에 居住하는 我等의 海外同胞에 對한 不斷한 關心、最大限度의 助力이 必要한 條件이 되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二

現在朝鮮人으로서 海外에 流離하고잇는 兄弟의 數는 正確한 統計를 엇기 困難하거니와 總督府의 調査에 나타난것만을 基準으로하야 불지라도 日本內地의 勞動市場에 出稼하고잇는 四十餘萬名을 筆頭로하야 北으로는 滿洲國의 約八十餘萬名、蘇聯領土內의 約二十萬名、中國本土及 南洋各地의 約五萬名、歐洲其他의 約千餘名을 合하면 其數實로 近二百萬에 達하야 이 數만으로도 一個所에 集中되다면 西歐의 一小民族國家等에 匹敵할만한 一大民族群을 形成할만한 狀態에 노혀 잇는것이다。그러나 이 彪大한 數의 移民群은 先進諸國의 貿易前衛隊 또는 未開地開拓을 爲한 一定한 權力保護下의 集團移民群으로서의 移住를 行한 結果가 아니오、그것은 長久한 時日間에 生活의 敗殘 其他 不幸한 理由에 依하야 그 大部分이 法律保護以外에서 定處업시 生活의 低面을 向하야 流動되는 것이라는데 海外在住同胞의 今日과 갓흔 生活의 不安定의 意義가 잇는것이다

三

勿論日本內地와 滿洲國에 잇서서는 이들 移住同胞에 對한 制限方法의 講求와 아울러 어느 程度까지의 保護方法을 運用하고잇는것이 事實이지마는 特히 滿洲國에 在한 朝鮮人의 生活上地位가 어느 程度까지 安定되얏다고는 오늘의 現勢로서는 말하기 어려울것도 拒否할수업는 目前의 事實이다

또한 蘇聯領土內居住同胞에 잇서서는 그 統治組織의 可不可는 別問題로하고 그 領域에서 生活을 持續하지 아니치 못할 運命에 잇는 限에서는 當該秩序의 制約을 밧을것은 不可避의 일임으로 論外로 할것이어니와、其他 우리 民族의 衆이 업는 外地에 잇서서 이 同胞의 生活은 言語風俗 其他의 居住地民과의 差異에서 生하는 民族的苦痛과 法律上 地位의 不安定이 더욱 크고 이에 따라 經濟的動搖도 더욱 큰것은 免할수 업는 短點이 되고 잇스니 一定한 文化를 有한 自尊的 文化的 共同體로서의 一民族이 數千年 流離하는 猶太人의 例에 依하야 볼지라도 移住地에의 完全한 歸依가 不可能한 ... 一民族의 安全한 生活과 正常한 發展을 爲하야는 一國의 굿센 民族意識을 形成하는 한 地域의 範圍가 반다시 ... 는것이다 그것은 海外進出을 排除치 안는 可能한 限의 本土 ... 이다 그러나 海外同胞를 ... 에 잇서서 附言치 아니치 못할것은 同胞의 離散은 智識을 世界에 廣求하는 網羅物을 ... 事實이란 點이다

印度側의 讓步로 日印會商成立
兩三日中에 本會議를 開催
假調印은 十六日頃

【東京電話】年末接近과 同時에 急轉直下로 進展한 日印會商은 三十一日印度側의 回答에 依하야 俄然急轉直下하야 實質的으로는 거이 解決한것으로 觀測되게 되엿다 即協定初年度의 綿花에 關하야는 印度도 日本의 主張에 正當한 正論에는 抗키 어렵다보고 마침내 日本案을 承認하야 오든 結果 細目의 點을 除하고는 如何間 印度要問題는 우선 끗난 셈이다

이리하야 日本代表部는 從來協議되든 各項目에 對하야 本國政府의 承認을 得하야 三日中에 日印本會議를 開하고 全問題를 正式으로 決定하고 正案의 作成에 入하기로 되엇는데 假調印은 大略本月十五、六日頃으로 觀測한다 當面問題의 印棉不買中止와 關稅引下案의 實質的問題는 可及的 速히 實施의 要가 잇서 假調印을 待치 안코 實施될터인바 그 時機는 來六日 보아長官이 派行하므로 當日前으로 豫想된다

印이 承認한 日本案

【東京電話】三十一日 印度에서 承認한 初年度數量에 關한 日本案은

一、同一年度에 잇서서의 綿布와 棉花를 關聯케하는 原則에 依하야 一月부터 十二月에 至하는 曆에 依한 一年間의 棉花數量과 四月로부터 實施하야 翌年三月에 至하는 一年間의 綿布數量을 定함

이리하는것으로 綿布의 實施는 三個月간저 實施는 棉花보다 ... 이는 日本側의 成功이라고할 點은 日本側의 ... 것이다 그러고 이 問題되는것은 本은 언제든지 綿花를 그만치 買入하면 綿布의 最高四億碼 輸入할수잇기로 된것으로 이 一年度 即今年의 綿布는 커러 滿月間을 如何히 할가하는 點이바 가 實施되는 四月까지의 三個月間은 印度는 附帶條件으로서

一、우선 昭和八年度의 綿花數量을 百二十萬俵에 關聯케 할 것

을 提議하얏다 한다 이에 依하야 綿花百二十萬俵를 基準으로하는 境遇 綿布는 三億四千二百萬碼로되므로 그 十二分의 三에 當하는 九千五百八十萬碼를 이 一月以降三月까지의 間에 輸入할수잇슬것이다

印棉市場平穩

【東京電話二日發】年末年始의 印棉市場은 歐洲大陸方面으로의 需要增加의 模樣이고 日本과의 商談은 皆無인 때에 平穩裏에 日印會商에 關하야는 成立을 確信한다

米棉初市場 樂觀氣分

【東京電話二日發】二日의 米棉初市場은 樂觀氣分이 만엇는대 就中 一九三四年은 政府의 減段計劃도 相當히 强制로하야 遂行될 豫想으로 市勢는 十五乃至二〇포인트高(日貨換算平均七十五錢高)로 大引되엿다

紐育株式市場 一般으로 前途樂觀

【東京電話二日發】紐育株式市場 初立會는 一般的으로 前途樂觀氣分이 强하야 好調로 寄하고 當初의 軟調도 上向되엿스나 後場 一時二弗 ... 反落되엿다 ... 局八分의 七假量으로 大引되고 아나콘다는 保合四十六仙의 假定을 보엿다 對日賣者는 三十一弗十二仙二分의 一

農民軍을 組織 中央兵力分散企圖

【聯合上海二日發】蔡廷鍇는 中央軍을 攻擊할 目的을 土兵港鐵民에게 軍資를 支給하야 農民軍을 組織하야 巧妙히 出沒케하야 中央軍兵力을 分散케하려고 企圖하고잇다 右農民軍의 本部는 目下 ... 軍事學校를 設하야 土民에 地方的으로 假政府의 ... 演說에 努力하고잇다

十九路軍優勢
延平附近에서 激戰中
泰順陷落도 目睫

【聯合上海二日發】中國側消息에 依하면 東部方面의 十九路軍先發部隊는 溫州를 目標로 前進하야 이미 省境을 넘어 平陽을 攻擊하는 中이오 中部戰線에서도 十九路軍 沈光漢의 部隊가 寧으로부터 進擊하는 中인바 泰順에는 이미 十九路軍의 便衣隊가 多數侵入하야 泰順陷落도 近日中에 實現되리라고 傳한다

【聯合上海二日發】福建軍陣에서도 延平附近에서도 兩軍의 衝突이 繼續되는바 戰況은 十九路軍이 優勢오 中央軍은 大勢가 不利하다

福建軍의 先鋒部隊는 目下 諸寧에 集結하고잇는 中이다 一方泰順은 便衣隊의 猖獗을 極하야 同地의 土匪林兆輕은 便衣隊에게 拉致되여 行方不明이 되엿다 또 泰順市內外一帶는 共産黨의 宣傳에 무처 住民은 極度의 恐怖에 陷하여잇다

◇時事漫畫 至極公平?
英佛軍縮時代다 왜? 그런
[危險한것을 가지고노아]

列强軍備의 現勢 (續)
W記者

將來할戰爭의霸者인 各國空軍의 編制

日本

日本의 航空熱은 上海滿洲兩事變以來 刻刻으로 危急을 告하는 極東情勢에 鑑하야 一層高調 되게되여 國民의 獻金으로된 飛機의 數가 百餘機에 達한것으로도 這間의 消息을 歷歷히 說明하고잇다 日本空軍은 陸軍航空隊와 海軍航空隊로 나뉘여잇는바 陸軍航空隊는

偵察隊 十一中隊
戰鬪隊 十一中隊
爆擊隊 四中隊
氣球隊 四中隊
計 二十八中隊가 잇고

飛行機의 數爻는 陸軍省發表에 依하면 六百機라고한다

海軍航空 에잇서서는 陸上에 根據를 둔 陸上部隊가 十七隊와 航空母艦(五隻)에 根據를 둔 四隊를 合하면 合計二十一隊로 飛機는 海軍省發表에 依하면 六百機라고한다

「에비에이숀」誌에 發表된 外國人調査에 依하면 日本空軍 의 現勢는 다음과 갓다

第一線飛行機 七〇〇機
第二線飛行機 六五〇機
計 一、三五〇機
空軍人員 一四、三〇八名

空軍의 養成機關으로는 新潟 下志津 宇治川市 濱松 霞에 飛行學校가 잇다

現在平壤 에 空軍으 飛行第六聯隊(偵察隊三中隊와 戰鬪隊一中隊)가 駐屯하고잇다

米國

大戰後는 米國의 航空熱은 極度로 昂揚되여 歐羅巴로 專門家를 派遣하거나 或은 優秀한 技術者를 獨逸等地 로부터 招聘하야 歐洲諸國의 精粹를 吸收하기에 沒頭하는 一方 遠距離航空에 特히 留意하야 오드니 今日에 와서는 世界에서 優秀한 空軍을 建設하게되엿다

其兵力은 正規航空部隊 九十三 中隊 護國軍二十中隊가 잇고 飛機一千八百機와 飛行船 十四臺 以外에 海軍機 一千臺를 加하게되면 純空用飛機만이 二千八百 臺에 達하게된다 米國의 民用飛行은 極히 盛大하야 飛機의 數가 一萬六百臺에 達하엿스며 操縱士는 約二萬을 算하게되엿다 米國航空輸送事業의 海外進出은 特히 顯著하야 南米에잇서 巨大한 勢力을 扶植하여스며 더욱 一九二九年 米中航空 契約成立 以來 中國內에 多數한 航空路를 建設하는 同時에 압흐로 米洲大陸과 亞細亞를 連結하는 太平洋航空路까지 計劃하고잇다。

英國

英國은 前世紀에서 國防의 第一線을 海軍에 두고 最良의 防禦는 攻擊이라는 原則을 現今에 와서는 空軍에도 適用하게되엿다 이러한 方針밋헤서 航空熱을 振興 操縱者養成 精鋭機의 大量生産에 注力하는 一方 特히 海軍航空軍方面에 留意하야 航空母艦改良 潛水艦에 飛行機積載 大飛行艇採用等 鋭意 新銳로 邁進하고잇다 英國의 現今航空軍의 兵力을 들면 다음과 갓다

一、空軍中隊數 七十八中隊
空軍의 總人員 三萬二千二百二十名
二、飛機總數 二、五四〇
第一線飛機數 一、二〇〇
第二線飛機數 一、三七七

佛國

歐洲大戰當時 空軍의 威力을 實地體驗한 佛國은 二國比敵主義의 方針으로 大空軍建設에 邁進하여온 結果 今日 全歐空中 에 王座를 占有하게되엿다 最近發表한바에 依하면 그 兵力은 다음과 갓다

一、空軍數
陸軍航空
偵察隊 七一中隊
戰鬪隊 三〇中隊
爆擊隊 三三中隊
海軍航空關係部隊 二二中隊
合計 一五六中隊
二、飛機數
第一線飛機數 二、三七五機
第二線飛機數 一、三〇〇機
總飛機數 四、六七五機
三、空軍人員 三九、二八七人

伊太利

伊太利의 國防政策은 陸海兩軍으로 守勢를 取케하고 空軍으로서 集中的 攻擊을 取케할 方針으로 極力空中 整備에 努力하여오드니 標悍함에 比하고 ... 滿한만큼보의 努力으로 오날날에 와서는 그 統率과 訓練과 整備와 遠征에 잇서서 優秀한 空軍을 建設하게되엿다 이러한 伊太利空軍의 現勢는 아래와 갓다

一、空軍數
偵察隊 二六中隊
戰鬪隊 一八中隊
爆擊隊 一四中隊
攻擊隊 二一中隊
練習隊 一三中隊
二、飛行機數
第一線飛行機數 一、〇〇〇機
第二線飛行機數 九〇〇機
總飛機數 一、九〇〇機
三、空軍總人員 三二、〇〇〇人

獨逸

벨사유條約에서 一切의 空軍을 喪失한 獨逸은 民間飛機도 一朝有事 時에는 軍用으로 轉化식힐수잇슴으로 不得已 民間航空發展에 依賴치안을수업게되엿다 一九二八年商業用飛行機製作에 關한 九個條가 解除된 以來 國內에서 DX飛行艇가튼 世界에서 優秀한 飛行機를 製作하는 一方 和蘭 蘇聯等國 外에도 만흔 工場을 建設하고 軍用機製作을 準備하고잇다 비록 現在에는 一機의 軍用機가 업다고 하여도 一朝有事時에는、이러한 諸工場으로부터 優秀한 軍用機가 獨逸로 輸送할것이요 許多한 民間機가 軍用機로 轉化할것이다

飛行士가 飛行士養成에 對하야도 細心 留意하야 「루프트·한자」會社를 비롯하야 諸空輸會社의 約八百名의 飛行士가 勤務하고 將校에 對하여는 스포츠의 일홈을 빌어 操縱練習을 行하고잇다 其他스포츠飛行學校 交通學校等을 創設하야 操縱士養成에 努力하고잇는 現狀이다

蘇聯

사베-트聯邦中央委員은 「萬難을 排除하고 空軍으로!」라는 標語밋헤서 强力航空力擴充에 努力한 結果 一九二五年以來 사베-트航空界는 急激한 發達을 遂하야 오날날에 와서는 歐米列强 에 對比할만한 空軍을 建設하게되엿스며 더욱 從來에는 歐米諸國으로부터 飛機를 購入하여왓스나 産業五個年計劃의 進步으로 國內에도 航空機製造工場을 整備하야 그 製造에 奔走함으로 將來에 잇서 더욱 發展될 希望이 充分이 보인다

사베-트空軍은 **飛行隊와** 氣球隊로 大分되여잇고 飛行隊는 다시 陸軍用과 海軍用으로 나뉘어잇스나 陸軍航空隊가 空軍의 主體가 되여잇다 더욱 海軍機까지도 水陸兼用機인것으로보면 사베-트軍이 얼마나 陸軍에 置重하는가를 볼수잇다

사베-트飛行隊는 그 任務와 性能에 따라 一、偵察隊 二、驅逐隊 **三、爆擊隊** 로 나뉘여잇스나 編制에 잇서서는 大隊 中隊 小隊로 區分되여잇다 大隊는 參謀部 政治部 厚生部 經濟部 連絡部 整備機一臺와 三中隊로써 編成되여잇스며 中隊는 二小隊로서 編成되엿고 一小隊는 飛機三臺를 所有하고잇다 其兵力은 一九二二年에 約二十中隊에 不過하든것이 今日에 와서는 **二百中隊** 機數는 約一千五百機에 到達하엿스며 더욱 戰鬪機의 增加가 顯著하다 特히 注目할것은 사베-트의 民間航空開拓과 發展이다 사베-트政府는 이미 航空路 **一百條를** 完成하엿스며 約五百臺飛機를 此에 使用하고잇는것이다 (完)

比律賓獨立法의 期間延長을 要望
컷팅法案의 欠陷을 指摘하야
米外交政策協會力說

【聯合워싱톤一日發】比律賓獨立에 關한 호스·컷팅法案은 比律賓의 昨年十二月 比律賓上下兩院의 否決하는바 되엿슴으로 同法의 規定에 從하야 來一月十七日로 期限滿了하야 法案의 效力을 喪失하기로 되여 그 運命은 注目되는 此際 米國의 가장 有力한 國際政治研究團體인 外交政策協會는 一日 루-즈벨트大統領에 게 對하야 比律賓獨立法案의 期間을 一月十七日로부터 다시 延長할것을 要請하는 同時에 比律賓의 永久中立案을 宣言하야다 即同協會의 比律賓獨立法案特別委員會는 호스·컷팅法案의 根本的缺陷을 指摘하야 米國比律賓間의 滿足할만한 公正한 協定에 到達하기위하야 獨立法案의 期限延長의 絶對必要한 所以를 力說하야 如左히 述하얏다

一、米國政府는 比律賓의 獨立과 同時에 即時 同島에 責任政府를 樹立하야 互惠關稅協定을 結하고 移民協定制度를 決定하는 一方 比律賓에 米國海軍根據地를 建設하려하는 企圖를 放棄하고 太平洋에 臨한 各國의 協力에 依하야 比律賓의 永久中立을 保障할것이다

二、日本이 現在 外部의 事情에 一切 귀를기우리지안코 오즉 國策遂行에 專念하는 中인 이 最大理由의 一은 日本朝野의 指導的地位에 잇는 여러人物이 모다 太平洋을 目標하고 互相矛盾한 各國의 企圖가 衝突할 戰爭場으로하야 이 敗退하면 사베-트聯邦이 이에 代할것으로 생각하는것은 事實이다

三、따라 此際 米國政府로서는 米國이 이가티 鬪爭을 回避하려고 努力하야 外交政策은 專혀 各國民의 共同의 利益이 互相調和되도록 國際關係樹立을 目標하고잇는 事實을 立證할것이다 即米國政府는 마땅히 將來의 外交政策을 闡明하야 第三者에 共同을 求하는 條件下에 比律賓의 獨立을 許容하는 同時에 海軍根據地의 建造를 放棄하고 比律賓의 永久獨立을 實現케 할것이다

今日本紙八面

八面錄

◇刑法을 고치어서、「判決猶豫」를 設하고、民法을 고치어서 「私生兒」란 稱號를 업시하라고。

◇한거름더 나아가서、判決할 거리를 업시하고、私生兒니 庶子니하는 不幸兒가 업도록 함이 엇더할가。

◇長子에게 家督相續은 如前히하나、妻와 次子以下에도 相續上權利를 認定하리라고。

◇그보다도 엇더한 限度를 두어 制限相續으로하고、남어지 財産은 國家가 管理하야 社會政策的으로 쓰이 엇더할가。

出版市場十週年記念
天下の良書を五割引で提供す

日本出版界取引機關たる出版市場は創立十週年記念事業として出版文化戰線を總動員し命令一下天下の名書良籍を半額に等しい値で奉仕致すことになりました

書籍商の方は勿論一般讀書子へも一冊以上いくらでも分賣致します

千載一遇此のチャンスを逸する勿れ!!

空前又絶後の大計劃大奉仕 一冊只の五十錢也 送料一冊四錢

左に掲載しある本は全部令名ある天下の良書ですどれでも只の五十錢也

受驗研究會責任編輯 **小學教員受驗講義** — 小學教員は第二の國民を養成する最も名譽ある天職である本書により勉强すれば小學卒業で小學教員になれる尚進んで中等教員となり更に大學教授となれる本講義によりて立身出世の基礎を作れ!

受驗研究會責任編輯 **巡查看守消防受驗講義** — 巡查は人民保護の榮職として今や到る處で歡迎せられ昇進が出來る本書は消防手、刑務看守、各府縣巡查、外務省巡查の立身出世及就職の案內を悉く記載す

受驗研究會責任編輯 **遞信官吏受驗講義** — 小學卒業で入學出來官費で勉强し卒業後遞信官吏として就職安全昇進迅速なり每年全國より集まる數萬の青少年の中獨學で任用され四十圓以上百六十圓迄の月給を給せらるは遞信官吏なり

最新圖解 **自動車講義錄** — 腕に技術さへあれば不景氣でも恐る事なし立身成功を望む青少年は速に自動車界に來れ本書は最新の教授法により三ヶ月自宅で獨習が出來る

記憶力研究會編纂 應用自在 **記憶力增進法** — 記憶の良い人は出世が早い如何に物覺の惡い人でも本書を讀めば記憶が良くなる試驗にも樂々とパスする智能はグングン增す早く本書を讀まれよ

法律研究會編纂 日常 **法律百科辭典** — 本書一冊あれば辯護士も六法も不要如何なる難問題も忽ち解決す民事刑事訴訟法等日常の法律は細大もらさず誰にも解り易く詳述しあれば一見即座に解決

小原信夫 通俗 **經濟學講話** — 通俗平易に經濟學を說いた我等の日常生活は殆んど經濟生活である經濟學を讀まない人は立身出世は覺束ない本書は如何なる初心者にもスラスラと解るやう著せる苦心の一大著述なり。

速記術講義錄 — 一時間五圓以上の收入あり、趣味と實益に富み月收五十圓以上の職業は速記者である短時日の練習で充分演說や講義、ラヂオ放送まで自由に書けるやうに速記術を親切叮嚀に說明したる講義錄である。

農學士 綱井太郎 **農村青年の進路** — 農村青年奮起せよ!農村の運命は諸君の力によって左右する時代である本書が大主義として諸君に呼びかけ絶叫する本書は單に事業を開拓すべき諸君の進路は正しく本書を信ずるからだ。

藤井鶴城 修養 **立志成功傳** — 諸君は如何なる方針のもとに志を立て事業を得んとするか我々は幾多の立志成功の諸君を讀んだ然し現代社會に範とする書は無い本書は諸君を一生の幸不幸を左右する重大な使命を以て刊行されしものなり。

農學士 山本豐次郎 實驗 **桑の栽培と增收法** — 一反一千貫以上の大增收法を公開す農家經濟を支配する養蠶の根源は桑園の改良にあり本書に公開せる新式改良增收法によつて反收一千貫の實收を期せられよ實に見逃すべからざる寶典である。

農學士 山本豐太郎 實驗 **蠶の飼方と增繭法** — 本書に公開せる新飼育法ですれば手間と桑を半減し違蠶を根絶し繭の品質良好にして且つ二倍の增收が出來る今迄は秘密にして公開しなかつたものを玆に初めて發表せるもので是れこそ最良指導書

農學士 山本豐太郎 實驗 **米麥二倍增收法** — 米麥作の大革命驚くべき增收の完成千古の學說や理論も實際に相違してゐては何んにもならぬ本書は著者が半生に亘る實驗苦心の結果實際的の名著として我國米麥作に一大革命を齎した快著なり

農學士 加藤孝三郎 農作增收 **肥料の施し方** — 肥料の知識なくて農業をするは頗る危險!本書は肥料の知識を誰方にも解り易く的に說いた肥料の知識こそ農業繁榮の基本である農家の最大の福音である本書により知識を得られよ

農學士 井上正賀 最近 **利益增大養豚法** — 六七頭位飼へば五百圓以上儲かる是非本書を讀め初心者も失敗なく大利益を得るが出來る殊に副業として小數を飼育する家は勿論大規模に養豚する場合等も詳述しあれば養豚專門になる人の必讀書

農學士 山本豐次郎 實驗 **養鷄二倍產卵法** — 養鷄の秘訣は實際と研究と努力の結晶として表すると內容は古今不世出の名著養鷄致富の新式養鷄法の實際行に役立つ寶典本書により少なく共二倍の產卵を擧ぐべし

通俗家庭講話 姙娠自在 **子の出來る法** — 一人でも欲しい…男でも女でも出來る…せめて御心配無用で本書一讀すぐに御實行なされてご本書は多年苦心研究の結果完成せる秘法を男女望み通りの子の出來る…

三省堂編輯部 **男女交遊法** — 夢と現へ誘ふ好きで好きでたまらない…

花井法學博士 **性慾の神秘** — 接吻、身も心も夢の如し、靈魂、涙ぐまし…

注文は前金に限ります引換は御斷り、切手は一割增し送料は一冊四錢の加算にて願ひます送料なき方には送りません目錄なし商人にもこの値より割引せず

東京市神田區三番町五ノ 東京書籍卸市場

公告

慶尙北道大邱府南町百拾番地에 寄留한 被相續人 鄭應源은 昭和八年拾月貳拾八日死亡으로因하야其長男鄭雲用이 大邱地方法院에申述하야 限定承認하얏슴으로 鄭應源의 債權者及受遺者는 此公告記載日로부터六十五日의期間內에其請求를申出하심을催告함 ... 右期間內에 申出치아니하면 民法第千三十一條에依하야 除斥될 旨를 附記함

大邱府南町百拾番地 限定承認申述人 鄭雲用 白
申述人 鄭雲用 親權者母 金鎭玉 白

公告

一月四日낫부터 巨彈巨彈新年의 興味百%의 名畫大會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 始映
料金 大衆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喜劇 센지리고메데作品 人間征服 全八卷
米國와-너社超特作品 喜劇 도라오는令孃 全八卷 파시-루스미라-主演
어나때나 靑春은사랑을부르짓는다 女子가男子를사랑하며 男子가女子를사랑할때 엇더한것이참된사랑일가 보고드르시라 愛의메로되!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畫 愚弟賢兄 全十卷 水上幸子 花岡菊子 小林十九二 若水絹子 主演
킹그小說에 載記되여서 만흔 讀者를 바든이것을 映畫化한것입니다 일홈부터드러 보아도 얼마나 興味잇겟습니가 우리가 한번 兄弟의 生覺을 보아두서야할 名畫올시다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一月三日낫부터 大公開 大衆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메트로골드윈메야社超特作 日本版 靑春의血潮 가타오를때 全十一卷 巨匠…삼옷드氏監督 主演 美男라몬로비로-氏
全鮮蹴球大會熱狂興奮以上으로 諸氏의피를뛰게할 巨編!
◇메트로골드윈메야社特作映畫 戰慄하는幻想 全八卷 主演……라이오넬배리모어氏
次週六日낫부터

廣橋桃花洞 電話一三二三 桃花劇場
豫告 青春狂騷曲、南의誘惑 지길博士와하이드、스카-! 不日內公演 太陽劇場公演

劇團 太陽劇場 新春特別大公演
一月一日낫부터 晝夜二回開幕
上階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一、人情劇 朴春園編 『괴구한아버지』 全一幕
二、洋劇 朴春園作 戰爭餘聞 一幕二場
三、幕間 獨唱 崔維 申崔 石承 仝仙 金承 … 舞踊 金友 金小 … 스켓취 林外 申카나生 多리 …
四、喜歌劇 朴春園作 『짐거운人生』 全一幕 짜쓰밴드指揮 李景洲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甲年을 피는무리

아모리따저바도 말句마다虛無孟浪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四)

于先璿源寶略엔李沁은업다

鑑龍에 薪邑하는 太祖는『鄭紅桃』

다시 저리감여론(鄭李堪輿)論은 리심이가저감을 맛나 지리학(理學)적에 얻은 물어본은 정씨 오백년의땅이나리씨말 것으로되여잇스니 먼저 리심이 년에 한강이붉에호리기 사흘어 뭇기를 정씨의일어날때가 언제 고 공주에는피(血)가 흘러 별 인가함에 저감은말하기를 한양 (鼠)이서로다두고 요수(蛟宿) 은리씨 삼백년의땅이고 계룡산 가서 남으로보이면 공주(公州) 에누히 배가풍하리라 그러면정 씨는 해도(海島)에서 일어나고 검은구름과 검은안개가 하늘을 가리어 지척을 분변치 못 하리 라 리씨의 수는 삼백년이 천경 의 운수이고 그사이에적은운수 를어드면 사백년은 지나리라하 얏고 다시 리경윤(李慶潤)이라 는사람의저작한 역시 참위의서 글 동차결(東車訣)이라는것을 보면

(◇호다 리씨오백년의 사직이 정씨의손에 결단나도다 정씨는 어느때일어날가? 이때를 당하 야 리씨는 화산(華山)의김은골 로 옴길것이며 곽장군(霍將軍)을 이 료동(遼東)의군사를 거느리 고도라와서 개병(家兵)을 물리 치고 참임군을도아 한번길에간 패(干戈)를 누이면 배(裵)장군 이 남어지적을물리치고 계룡산 려롱(遊龍)아래 팔백년의오랜 도읍이 될것이니 그도읍태조의 성은정가요일음은홍도(紅桃)이 며자는정문(正文)이고나키는무 오(戊午)년에나아해도중의평실 (平實)에잇다가나와서계룡산에 건국할것이며 을미(乙未)년에 는 나라에근심거리잇고 반드시 상변(喪變)이잇슬것이며 혜성 이 동쪽으로보일것이니 리씨에 게해롭고 병신(丙申)년에는 정 협초하두날 일식(日蝕)을할것 이니 이것은 정씨에게조흔일이어 다운운한것들이 세상을 현혹식 이는 소위 정감록이란것의대략 곱자이다

仁川富平사이에 夜泊千艘한다고

이와가치 미래를 오백년이란 에말하야노앗고 또 오백년이란 에말하야노은 아예언(?)이 팍 팍마저들어간다고 어리석은 무 리들이 혹하는아정감록이란것 이 과연 그동안에 마자 내려왓 든가? 조목조목 따저보기로한 다 우에도대략쓴바와가치 리씨 네 선원보략에 우선리심이라는 인물이업는것은 물론이오 최근 백년이래로 신년(申年)을 일곱 을지냇스니 그것은 병신(丙申)、 무신(戊申)、경신(庚申)、임신 (壬申)、갑신(甲申)두번재병신 (丙申)、두번재무신(戊申)두번 재경신(庚申)、두번재 임신(壬申)의해들겨끈것이 그것이다그 들 정감록의 말대로라면 이 들 아홉신년 사이에 어느해이 고 인천부평사이에 야박천수 (夜泊千艘)를 한해가 잇서야 만할것이로되 우리가본바와 들 은바에잇서 전혀그런일이 업섯 슬뿐아니라 인천근해에서 큰해 전(海戰)이잇든일로(日露)의해 전도신(申)人자든해와는인연이 멀은갑진(甲辰)년이엇고 멀직 이데여서 황해(黃海)라는 큰바 다를건너 서로대고본대도 일본 이청도(靑島)함락 식이든것을 『언부지간에야박천수』라고한것 이라고 백보를사양하야 해석하 야준대도 그것은 대정삼년갑인 (甲寅)년의 일이엇스니 그것도 당치아니하며 또갑오년에 동학 (東學)당의 란리가낫슬내 한국 은제힘으로 이것을 막지못하야 청병(淸兵)을 불러대일때에 인 천에는 청병을가득실은 청국배 가와다앗스되 그것은 신人자든 해가 아니엇스니 그매낭함을집 작할수잇다

釜山은一躍首位 仁川港은逐年不振

이듬에鎭南浦가長足發展

合併後의貿易港變遷

도사의발전은 무역의진흥여부 를 따라그소장(消長)이좌우되 는터인바 최근몃해동안 조선각 유수한 항구의 수이출입(輸移出入)무역액의 가격별과그증감 여하를보면현재의수스자로는부 산(釜山)이수위를 점령하고다 음으로 인천(仁川)진남포(鎭南浦)신의주(新義州)군산(群山) 등의 차례인바 그발견과정을살 히면 한방(合邦)당시와 그후오 늘까지의 사이에 커환된바가만 호니 한방당시이든 경술(庚戌) 년에는 부산보다도 인천이가장 수위로 수이출입 무역액일천육 백칠십이만일천원이고 부산의 그것이 일천오백 팔십팔만 원 천원 이든것이 한방한지 다 섯해만이든 대정 십사년에는 벌서 주객이전도되여 부산은삼 천이백이십 오만사천원으로 약 진하고 인천은 이천구십륙만사 천원으로 부산보다 월등한저하 를 보이기시작하야 이후네리부 산에게 수위를빼앗겨 최근에이 르러는 부산은일억칠천이백 구 십이만 삼천원이되고 인천은구 천십오만일천원으로 크게 그부 진한(不振)한바를 보엿다 다시 제삼위가되는 진남포를보면 경 술년당시는 사백오십륙만원 박 게아니되든것이 대정사변에는 칠백오십삼만 이천원이되고 최 근에는 오천사백오십만 삼천 원이되여 증가별견이 되기는 하얏서도 부산의그것과 가치 눈부시는 속도를 보이지못하얏 스며 제사위인신의주는 경술년 에 일백팔십일만구천원 이든것 이 다섯해만에는 오백십일만구 천원으로늘고 최근에 이르러서 는 삼천륙백 오십오만 오천원이 되여 역시부산의그것과 가티되 지못하엿스며 군산은 경술년에 삼백 삼십구만 륙천원이든것이 대정사변에는 구백오십팔만 일 천원이되엿고 최근에 이르러서 는 삼천구백팔십구만 사천원이 되는바 다른곳들이 부산에비하 야 발전이더디인것은 부산은일 본인상업자가 만흔우에 지리적 으로 일본과갓가운관계로 약진 권진을보이나 다른곳은 권혀그 러치못한까닭에 지완한 발견을 보인다고한다

◇이번엔단단히어러스니……

市內兩處에火災

電爐漏電으로齋洞서三棟全燒

中央高普小使室에 小火

이일오후 여덜시오분경에 시내 재동(齋洞)사십륙번지부호박용 규(朴容圭)씨 집에서는 주인의 일가족과부가 조선(호텔)연회 에가고업는틈에 큰방 책상우헤 노아둔 전기스토―브」에서 므 권이되여 책자에인화하야 그만 삽시간에 채가가화광에 싸혀섯 다 소방대삼십여명이 출동하야 진화에노력한결과 삼동삼십여 간이전소되고 동삼십오분 경에 야겨우진화 하엿는데 손해는산 천원가량이며 오천원의 화재보 험에드럿다고한다

이일밤여덜시경에 시내계동(桂洞)일번지 중앙고보(中央高普) 소사실에서소사김원순(金元順) 의장남재천(在天)(三)이가혼자 집을지키고잇든중부억에서불이 나서일시소동을 이르켯스나 마 침고진화하엿다원인은부억에남 은불씨이 문창지에 인화하야천 정에까지 연소된것이라한다

新年劈頭에强盜

黑色洋服입은三十歲男子가

西界洞米穀廛에出現하야

二十餘圓을强奪逃走

신년벽두의강도소동――이왈밤 일곱시반쯤에 시내서계동(西界洞)일백구십사번지큰길가에 잇 는 송한규(宋漢奎)씨가가에 강 도한명이 뒷문으로 침입하야주 인송한규(六二)로인을협박하고현 금이십여원을 강탈하야 어대로 인지자최를 감초아버렷다 한다 강도는 삼십세가량 키는오척오 촌가량되어보이는 조선 남자로 주인송씨가막가가문을잡그랄할 지음에그가가뒤대문으로드러왓 섯다강도는검은쯔메에리양복 에검은 중 모자를쓰고 또검은 구두를 신고서 왼손에는자권거 에다는 컨등을들고 올흔손에는 외투(오바)에너은채로방안에 드러서서금괴를열라고위협하다 가송씨가금궤열쇠는아들이가지 고가버렷슴으로 열수업다하니까 그러면 다른궤에든 돈이라도내 어노라고 위협하야 노은으로면 든 동곰이에 너어둔오전십원오 십원짜리를 한하야 약아십여원 을 빼아서가지고 뒤문으로도루 나가서 도주해 버렷다한다급보 를 밧고 소관동산경찰서에서는 형사대가 출동하야 별항광경을 조사하는동시에 시내각 경찰서 에통보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그행적을 탐지치 못하엿다

『왜왓는지알겟지』

主人宋漢奎氏談

나혼자가가문을 잠그고방으로 드러갈려고 문을 여니키가큼직 하고검은양복입은놈이별안간 에 방안에 드러서서는내가 웨 왓는지 알겟지 하면서돈을내이 노라고 위협하기에 겁이나서잔 돈모아둔동곰이가운데서십원짜 리몽치만 약삼원가량내어주엇 더니다내어노아』하면서덤빗으 로동곰이채로 내어주고 동곰이 만두고가라하여도다음에돌려보 내주마하고 그냥 가지고뒷문으 로나가버렷서요 그래서 나도뒷 문으로이어나가시어대로가는가 불려하엿더니 대문간압 권주젼 례서서『위나와』하고위협을합으 로겁이나서 도두가로 드러왓 다가다시나가보니벌서도주를한 되다그래서도적이야고고함을질 럿스나벌서 그녀석은 적은골목 으로엽길로드러화살가티도주해 버렷소 그래서 곳파출소에신고 하엿소운운

◇강도낫든 계동미곡뎜

天氣豫報

晴

七日西미리의高氣壓은滿蒙方面에서滿洲朝鮮으로 擴大되여잇고 南西岸은 降雪이잇스나其他는 天氣가 良好하며 一般으로 北西風이强하다 明日도天氣는快晴하나寒冷할터이다

昨日 最高 零下一、八 最低 零下一一、二

今朝 最低 零下一一、三

今日正午 零下八、八

이번추이는 三日繼續

수일래로 치위가 상당하야밤 이면 기온이 령하십도까지내 리기를 수삼일계속하더니 간 밤에는 서북풍이 몰며치위는 한층더하야 삼일에도 하늘은 파라케 잘말갓으나 바람은그 대단심하야 정오의 온도도령 하팔도팍부로 금년으로 서는 최초 큰추이이다 이가치치위 진것은 몽고(蒙古)방면에 우 세한 고기압이 발달되여조선 방면으로 발달된까닭에 서백 니아의 찬바람불어오는 까닭 이다 치위는 아직이삼일간계 속될모양인데 연아일대는 북 서풍이 심함으로 주의하여야 될터이라한다

딸이아버지걸어 扶養料萬餘圓請求

시집보낸후못살게하엿다고

全州地方法院에提訴

전북남원군 운봉(南原郡雲峰) 백마장자의 딸 박진규(朴珍圭) (三)부인이 그의아버니 박히유 (朴熙允)(몇)씨를상대로일마전 에전주(全州)지방법원에부양료 (扶養料)일만오백원의청구소송 을이르켯는데 오는 십칠일에 그재일회 준비수속이 잇기로되 엿다원고인 그여인은 색시는사년 전에자긔 어미니의 승락을밧고 당시 남원군속(郡屬)으로 다니 는 일본대학출신 리정진(李廷珍)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엿는 데 서울 공회당에서 결혼식 을 거행하는중에 유인의협의 로 경찰서에 붓잡혀가일도잇섯 스며그뒤에 수차나장인이 사위 를 철어검사국 속입을시킨것으 로 말미암아세상되어린아이(남자)까지 나하서살고잇든가져이 그만 파괴되어 버리고남편리정 진은 동정으로 다시류학을가버 렷슴으로 먹고살수 업게되엿스 니 아버지로 자식에대한부양의 의무를 리행하라는 청구의소송 이다

新春劈頭스포―츠界快報消息

日本遠征普專『럭비』 關西學院을擊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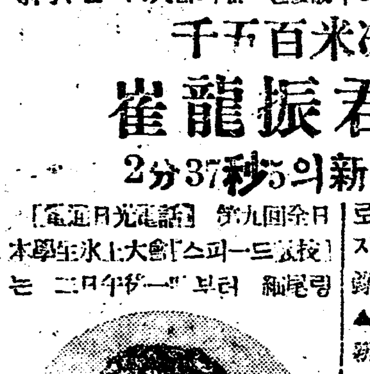
普專14(11―8 3―5)13關西

【大阪支局電話】 第九回全日本高等專門學校럭비―大會는八地方으로나노아 豫選을行하야 一月二日 花園競技場에서 各地代表의第一回戰이擧行되엿는데 朝鮮代表로出場한 普成專門學校는 同大會의唯一한優勝候補關西學院(兵庫中部의四國代表)과對戰하야 猛烈한接戰끄테 十四對十三의스코어로關西學院을擊破하엿다 이러하야四日에行하는準決勝戰에올너것다 (寫眞은關西學院을擊破한普專럭비軍)

千五百米決勝에 崔龍振君優勝

2分37秒5의新記錄으로

【電通日光電話】 第九回全日本學生氷上大會「스피―드競技」는 二日午後一時부터 [illegible]링크에서 千五百米決勝(마라톤 이트・타임레스)으로부터開始한바 氷質不良하야 코―드는좃치 못하얏스나 千五百米에明大의崔龍振君(新義州高普出身)은二分三十七秒五란 學生新記錄으로一着하엿는데 昨年에崔君이지은 三分四十六秒二의 新記錄을堂堂八秒七을短縮하엿다 ▲1着崔龍振(明大)2分37秒5(學生新記錄) ▲2着[illegible](明大)2分46秒8 ▲3大原(早大)2分48秒4 ▲4着[illegible]英(明大)2分48秒6 ▲5[illegible](慶應)2分49秒4 (寫眞은崔龍振君)



京師大勝

對北海中

【電通大阪電話】 一月二日甲子園에서열닌 第十五回全日本中等校럭비―大會에出場한 連三年優勝의京城師範은 北海道代表北海中學에게五十八對零으로大勝하엿다

謹賀新年

大連 / 大連市外老虎灘[illegible]山屯七 金志乙

大連市櫻町一〇七 得盛公司 康安得 / 朝鮮物產售品部 金鎬龍

大連 朝鮮人自動車 若狹町營業所 金長壽 玄齊邦 安癸錫 李日聖 安弘德 金千年 金點[illegible]

大連市文化臺一 關東洲朝鮮人會

大連市役所 市長 小川順之助

李殷相

大連大黑町五七 京城旅館 李德基

大連市若狹町六三 海陸物產 貿易委託 下宿營業 卸商 朝鮮屋 主 金淳道 電話二三八八七番 振替大連二六五番

趙熙綽

大連市逢坂町 逢坂樓

大連市逢坂町 金周烈

大連市西崗街 鄭彦錫

大連市西公園町一六七 和洋菓子 朝鮮菓子 大連堂 崔雲鳳 電話三一二〇

大連市青雲臺四十九 各種タイヤ再製 原料ゴム販賣 三光タイヤ商會 金權熙

滿鐵本社地方部庶務係 李學文

滿鐵本社工事課建築係 李天承

大連市惠比須町一三五 金泳浩

大連市大黑町二十番地一 大同旅館 金洪默

大連市惠比須町四十三 漢城旅館 李昌順

大連市沙河口 理髮師 權赫周 中央理髮館

大連市逢坂町 李根碩

張大葉

大連市逢坂町 李自勳

大連市外老虎灘[illegible]山屯 逢永錫

大連憲兵分隊 朴淳喆

大連市惠比須町四〇 車三順

大連沙河口元町 金應淳

大連沙河口西町 金德水

大連沙河口西町 金泉樓

大連市青雲臺一三 康永達

大連市淡路町太タク營業所 李觀洙

大連市淡路町太タク營業所 申子善

大連市大正タクシー 張慶宣

大連市太陽タクシー 洪淳觀

大連市太陽タクシー 申永善

大連市常盤橋大タク營業所 李熙淳

大連水上警察署 朴海甲

村落에서 都市에 都市에서 村落에

海州 新年으로넘어온 海州의四大問題

海州 一記者

일구삼사년에잇서 해주지방에 문제될사건! 그것은 결코적지안타 그러나 제한된지면에 그것을 일일히 열거할수업는것이니 그중에서 해주사회로서가장중요하고 절실이문제되는 몃가지의 사실—조철옹진선부설(朝鐵瓮津線敷設) 해주청년회관 매각활용(海青會館賣却活用)문제 해주수도(水道)문제 해주 의창학교(懿昌學校)와의정녀학교(懿貞女學校)의 유지문제등에대하야 간단히 그개요를 소개하기로하자!

◇朝鐵瓮津線敷設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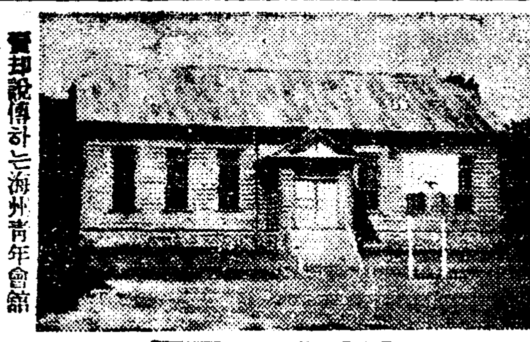
해주와옹진, 장연선철도부설(瓮津, 長淵線鐵道敷設)문제는 해주를 비롯하야 직접관계되는 옹진 장연등의각군민의 렬렬한 부르지즘으로써 오래전부터 맹렬한운동이 대두되고 잇섯다 그러나 아직도 그실현을보지 못하고 미해결문제 새해로넘어오고말엇스니 이문제는 황해도산업(産業)증진여하와황해도전체발전여하에관계되는 중요한 경제선인만큼 일구삼사년에 잇서서 더욱문제되지안을수 업슬것이다

◇青年會館賣却活用問題

해주청년회관 매각활용설은 작년 시월초순경부터 대두되엿는바 해주청년회관은 사회사적으로보아 조선인의근대사(近代史)우에 큰경계선을지은일구일구년삼일운동에 자극을바더 일구이십년에청년원석희(元拆熹)리규엽(李圭燁)씨등에의하야된것이엇다 그래서 당시의회관은 계몽운동의강연회장(講演會場)과청년들의 구락부적장소로 서간부의손에서 일구이삼년 까지운권리용되여 왓든것이다

그리자 조선의운동이 청년당대회(青年黨大會)를경계선으로부터 쇼뿌르민주 주의운동 으로부터 무산계급적 운동으로 귀환한일구이삼년경에 청총(青總)변령 제한령에 의하야 쇼뿌르 민주운동자인씨등간부는 회관을 내놋코 밀녀나가게되고 이에따라 회관은 당시무산 청년운동자인 리인수(李仁秀)송언필(宋彦弼)씨등의손으로 건너 오게되엇다

그리하야일구이사년이래수년 권 한법운동이 용허되는때까지는 무산청년운동의 집회장소로 혹은해주시민의 집회장소로 리용되여왓스나 표면운동이 억압을 당하자회관은 아모리용할길[illegible]되고마럿다



賣却說傳하는海州青年會館

이와가티 특별히 늣길것이업게되자 동청맹(青盟)간부들을 비롯하야 과거연고자의 일부에서 매각활용설이 작년시월경에 대두된바 이것을 파라서활용하자는데 잇서서는 일반적으로공동된 의견을가지고 잇스나이것으로 무엇을할가하는데 잇서서문제가되여잇는바 그중 세가지의 대표적의견이 잇스니 하나는도서관을만들자 하나는빈민계급본위의실비진료소를 만들자 또하나는 유치원을만들자등 이와가티 관계자들의 의견의통일을짓지못하고 새해로넘어왓든바 일구삼사년에잇서서 이회관의 활용문제는 구체적으로 론의실현될문제가안일수업다

◇上水道問題

해주의 상수도는 십수년전에 설계한것인바 그때보다 오늘의 해주는 여러가지로 비약적발전을이루고 잇는터이라수원지(水源地)의저수량이 부족하기짝이 업서서 적지안은 지장이되는것은물론 수도물을 음료수로쓰고 잇는 일반주민은 심히 고란한가운데에 잇는바이러한 불충분한 수원지로서는 읍민에게 음료수를 충분히공급키 어려움으로이상수도문제는 해주사회의 절실한문제가 되여잇는것이니 일구삼사년에 잇서서는 읍민간에큰 문제를 삼어야될것이며 또한문제가될것이다

◇懿昌懿貞兩校維持問題

해주의 사립의창보교는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에 미국선교사 고론부—씨의 창설이오 의정녀교는지금으로부터이십오년전에 미국선교사 노보울씨의손에창설되엿든것이다

의창보교는 창설이래 소화륙년까지는 미국선교사회의 매년 사천원이란 보조를밧아 아모곤란이업시 경영해오든바 대정십년도에는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그보조를 이천원으로주리고 동십일년에는 천원으로 십이년에는 오백원으로 동십삼년에는 그나마 한푼도보조금이 오지안어하야 존폐문제에이르게되엿다

그리자 다행히 해주유지오응환(吳應煥)씨가 동십사년 부터 소화사년도까지 일년에 천원가량식보조를 해주어근근 유지해오든바 오씨역시엇더한 사정으로그보조비를 공급치못 하게되자소화칠 팔년도에는 동교의창설자고론부씨로 부터 칠백원식 보조를밧고 그부족액은 박성행(朴聖行)김진각(金振角)김유옥(金潤玉)김상돈(金相敦)최형직(崔亨稷)등제 씨로부터각각백원식보조를 바더근근 유지해왓스나 내년도 부터는그경영이 문제라고한다

다행히 래년과가티 고로부씨로부터 칠백원의 보조비와전거유지제씨로부터 오백원을 밧고 월사금으로 밧는다 하드래도일년에총경비 사천원을 요한즉부족액이 적지안은바 래년보조가 다을는지 의문이라한다

의정녀교는 창설이래 금년까지 미국선교회에서 매년 약사천원식 보조를 밧어오든바 역시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금년부터는 이천원으로 줄기로되엿다한다 일시에 이천원식보조비가줄어드러 그경영이 곤난한것은물론 또내년도에는 엇더케줄지나안을는지 예측 할수업는것으로서 이양교의 유지문제는일구삼사년에 잇서서 문제되지안을수업슬것이다

商工都市建設 生産機關의急設

海州 吳世暐氏談

오늘의해주는 산업방면 으로보든지교통교육등기타온갓방면으로보아 놀날만큼 비약적발전을뵈고잇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해주가 현존상태에 머물러잇지안코 좀더발전하야 신흥도시로서의면모를갓추라면해주는상공도시화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이러하기위하야는 오래전 부터 해주를중심으로 옹진장연등관계각군민의 열렬한부르지즘으로서 맹렬한운동을 이르키고잇는옹진선철도부설문제의실현과해주총자본의 집중에의하야생산기관의급설이당면의과제가 안일가한다

철도부설문제는 해주에 한한 원지방문제에 끄치지안코황해도의 산업증진 여하에관한 중요한경제선이될으로 해주옹진장연에 각각 철도촉진기성회가잇서서 맹렬한 활동을하고잇는터이라 그실현이멀지안케해석되나 생산기관의 급설이란 그리용이한문제가안이다

웨그러냐하면 우리해주사람에게는 첫제자본이업다 그리고 기술이업고지식과수완이부족한데다가또한판로가협소하야문제다

이러케말하면해주에는부자가업느냐고 할는지 모르나해주의부자라는 사람들의 이면생활을드려다보면 이삼만원을 선뜻내놀만한 경제적 실력자가륙칠인못되고 그외에는 거진남모르게빗(債務)을지고잇는도금한부자들이다

그러나 이와가티 자본이빈약하고 기술과 지식이부족하다고 해서 단념하는 패부적(敗北的)견해를 가질것이안이라 우리는해주에흐려저 잇는 돈을총집중하고부족한 지혜를짜서 이지방의특수성에 부합되는 생산기관! 측례를들면 평양과가티 고무공장이든지 제사공장이든지 정미소등을 세우는동시에 상업방면에도 일층주력을경주하야 상공도시를 만드는데서만 대해주는건설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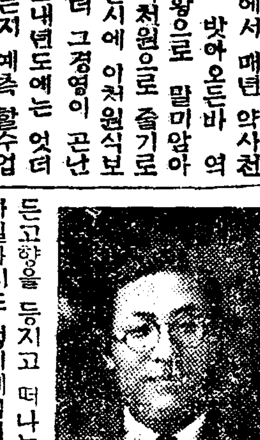
輸移出入....◇ 統制機關設置

城津 郭世顯氏談

성진의 번영과 상공업의 관계를 무르시니까 말입니다, 성진항은 해산선철도로 인하야 목재의수송개서와 동시에 외래의대자본이 류입하야 일약상공도시화하려는이때에 무엇보다몬저 수이출(輸移出)통제기관을설치하지안으면 안이될줄압니다 지금수이출상은비교적견실한 발전을 보히지만 수이출상은 동업자간에 경쟁이몹시심한중 매방(買方)에서는특수한우월감을 상업취인에게까지 적용하야 늣무리를 드리주지안으면안되는형편이니 자연 파산의비운에빠질수밧게업지안습닛가 대개수이출상은 해산물과 대두를취급하는데 이것은성진、길주、명천、단천사군농어산촌의경제를 직접좌우하는 것입니다。소화칠년도에대일중、만(對日中、滿)무역액은 수량이십오만사백칠십삼이요 금액은 구십일만여원이엿슴니다 그칠할은 우리들이 수출하는것인데 어느때든지 생산과잉으로 곤란을밧은일은업슴니다。오늘날경제불황으로 가격의 하락은보앗스나 이와가튼 상당한 무역액에달하면서도 순조로 발전못하는것은 전혀 동업자간에 경쟁뿐이요이것을 통제하는 긔관이업섯든까닭이라고 봄니다。지금 현상으로보아서 성진은 일대무역지대인데 여기에잇는 무역상들의발전은 직접 함경북부지방의번영을 운위하는것이겟습니다 그럼으로외래의대재본벌이진출활동하는 현하 성진에잇서서는우리상인들은 그야비한 경쟁과알륵을 적대멀니하고 일치결합하야 우리들의 머리와 손으로리상적 통제기관을 설치하야써 이미점령한지반을 튼튼히 보조함이성진의 장래번영에 중요한방책이라고생각합니다 ◇寫眞…郭世顯氏

무엇보다도....◇ 産業機關의勃興

咸興商業會長 金秀根氏談



위선 도시의 번영은 그도시의 포옹하고 잇는 인구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산업긔관이 잇서야 하게습니다 생산할길이 업는땅에서 생활할수업슴은 숨길수업는사실이며 타지방인이 이주하여오지못함은 물론이어니와 정든고향을 등지고 떠나는비참한 사실까지도 생기게됩니다 그러나사 함흥의일반인사는 너무나사업에 대하야 무관심하다고봅니다 좀더각종기업을 이르키기를 기대합니다

一、西湖津의築港

장차대함흥의탄토항이될서호진항이상금까지도 구태를 벗지못하여우리 함흥의상 공업이장차취인의길을 멀리해외에 까지뻣치지못하게되니 서호진 항의축항은목하의 급무이며 당국의이에대한 서심을원합니다

二、國境方面의道路開通

수년간함흥는각지방과의도로가개통완성되여 상공업은 이상의발전을하고 잇스나아즉 까지도국경방면의 도로가 완전히개통되지못하여 혹자로 린접된만주국과의취인에 지장이불소 하니하로밧비완성되기를원합니다

三、市區改正

근년에 부제가 실시됨에딸라악대한경비를투하여 시구개정하수도공사에 진력하고잇스나아직도 녯함흥의 추잡을면치못하는곳이잇스니 장래 대함흥건설의긔초로 더한층 개정할필요가 잇다고봅니다 ◇寫眞……金秀根氏

農業郡이니 爲先細農安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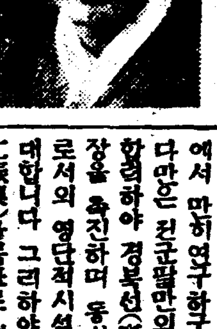
江西 金義善氏談

강서라는곳은 자고 이래로 농업촌인데 세농민이 팔할을점령하고 잇습니다 강서에서 가장급무인것은 세농민의생활안정입니다 농민의 생활안정을시키기위하야서는강서수리조합문제와저리자금문제입니다 강서농민은 강서수리조합구역내에서 소작농사하는이가대다수입니다 다수리조합에수세도수세려니와 비료대까지 고등하야 소작인은 금년가튼풍년에도 소득이업는모양인듯합니다 그럼으로비료는 금비를 컨폐하고퇴비를 권용하여야 소득이잇슬것입니다 저리자금융통 긔관인금융조합이잇지만은 일일이세농민의 생활비와농채와 비료대까지대부키 불능함으로 소작인은할수업시 지주또는 그밧게사람에게서 돈을고리로차용하야 일년농사를지여서년말결산을보면 아무것도 남지안슴니다 세농민이나마 소규모의금융긔관을설립하야단체적생활을하여야될줄노 생활을안정하기위하야는부락적하고 자각적으로 농사자금을세우고 일편으로는 농민야학을세위서 문맹을퇴치하여 세농민들의 정신을깨워야될줄압니다

慶北線延長과 大資本家進出

榮州 全河曝氏談

우리영주는 비록 경북의 북쪽이나 지방이 사십이방리요 인구가 팔만이 가까이거주하며 농작물이 주요산품일뿐아니라 서으로 충청북도와 북으로강원도를접하야잇스며 동으로 태백산소천(太白山小川)의 목재와동해안의 해산물들이모다 영주를 인후(咽喉)로 하고잇지 안습닛가 일즉부터 우리지방번영회에서 만히 연구하고잇는바 입니다만은 진군팔만의 군민파일치합력하야 경북선(慶北線)의 연장을 촉진하며 동시에대자본가로서의 영단적시설이 잇기를기대합니다 그리하야상공진흥(商工振興)을목표로 매진하려합니다 ◇寫眞…全河曝氏



忍耐力잇게!◇ 爲先經濟的自活

馬山 李謹雨氏談

글세올시다 그근본문제가 해결되지못하는우리 처지로서 무엇을엇지하여야 내고올안이 잘발전될것인지 차라리벙어리될이발권의 한술책이되지안을가 합니다 그중에서 내곳의 발전책이라면 이로한두가지가 안이겟지만 무엇보담도 상공업중심으로 어느정도까지의 국한된안에서라도 먼저경제자활을힘써야할것이며 이경제운동에잇서서는 먼저자의적단합에서 일치를도모하는동시백적불굴의 심적근기(心的根氣)를양성할것입니다

대개우리들은 사업을시작하기는쉬우면서도 그시종이여일치못함은 모다이인내(忍耐)가부족한소치가 안일가합니다。

그러고 먼저 교리(巧利)와상극(相克)의 심리를 바려야지오 이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이 땅에사는 사람이면 피하지못할 심정을 들일지는모르지만 남이진권해갈은 심정으로보아둔다면 우리는 어찌조금한 사업일지라도 그호권을바래고 운권해갈수잇슴닛가

그러고 또한편우리란사람들은 대체기업열이 너무나업는것갓슴니다 어에우리의 실력가들도 기업의 자각을가저야할바가안일가합니다

朝鮮唯一의 溫泉施設完備

白川 趙斗燮氏談

우리백천도 이땅의한낫농촌도시이니만치 침쇠하는 한편 무슨 뾰족한 수가잇다고 그밧궈될길이 잇겟소만은 다만남달니 조흔히망을 부치는것이 잇기는 하외다。

그것은 근년에 새로발견한온천、그리고또조선철도토해선(土海線)의개통으로교통이편해진 것이외다 그리하야 올라으로부터만회보다 더조흔 백천을보이려고합니다

금후우리가 이지방의 번영책으로노력할것은첫재온천에만흔 촉망을 가지닛가 그것에제일주력을요할것이라고봅니다무엇보다도이온천은그온도나질로서조선의첫재라고 할만한데다가 더욱이경성과 개성서 제일가갑다는유리한 조건을 가젓으니여기서는여긔다 적당한 대중적시설은물론이요 터업시대를 벗차게만바드려는데만 급급치 말고원대한계획아래 지방 발전이라는 아량으로 될수잇는대로 협하게 제공하야 장족도급속의발전을도모할것이라고봅니다

그다음 또한가지 우리지방은 농작물의 산출이만키로는 서조선에굴지하는 곳으로서 농업가의판로에 대한불안과 자금융통에대한곤란을일소할만한상당한 자금과 신용을가진 곡물무역상 또는정미 창고업자의 활약을고 하긴절한번영책이라고절규합니다 (了)

物質과文明의 並進的施設을

羅津 金琪宅氏談

라진(羅津)은○○선의종단항으로서 그의의의(意義)와가 모에따라 우리의 힘을빌지안코일대번영을 극할것입니다 이것의해결책은 별문제로하고현대물질문명을자랑할만한도시가될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라란고 반드시일반민중의 경제적생활과 문화적시설(文化的施設)까지가제적로향상발전되리라고는 볼수업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엇더케할것인가? 나는한말로써 말하겟슴니다 이것은 우리라진에잇는사람들이 종시대에 눈을떠서이러한문제에대하야 관심(關心)을 가지고 선의와 물질적힘을내지아니하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農民意氣助長과 特産物增殖獎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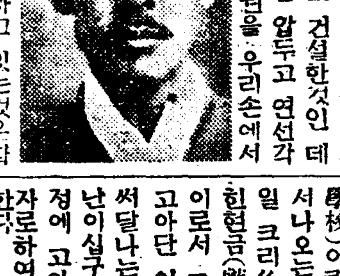
錦山 鄭桓鍾氏談

우리고장은 농촌인만큼그번영책도농어상또는 농업에관련된것이라하겟스나 나는이것을 심적과물적의 량방면으로 구분하야 생각하고자한다 먼저 농민들의 의긔를 니르킬필요가잇다 근자의농민들을보면 심긔와 의긔가 넘어 저상하얏스니 생활의주위환경이 그리하엿다고 할것이나 자위건설을 그주요로하는 이때에 견지감내하는 도량이업서서는안된다 다시정신을 차리고 심신을 새롭게하야 사물에접하자! 그러면반다시 새로운 길이 잇스리라고밋는다 그러고 농민들의 대우개선이다 종래에는 그들을넘어천대하고 하시하엿다 이결과는 그들에게퇴패와 위축과 자모적악습을 주엇슬뿐이요 진취의활달한 긔상을주지 못하엿든것이다 문맹을 퇴치하야 세사를밝힐것이며 오락긔관과 농긔를리용하야 운동혹은기타경기회를 자조개최하야 견식을넓히는한편 취미와 사회의식을향상시킬것이다

둘재로는 특히자랑할만한 특산품을 장려하는데 잇다고밋는다 어느골이나공동되는농산물이나 공업품은 그다지문제될것도 업스나 달은지방의인사귀와 경제를집중시기여 내고장을 번영케함에는 내지방의특산물 보다더 조흔것은 업슬것이다 더구나우리금산은 이백여년간이라는장구한력사와 그약효로 전조선어느골보다도 제일우수하다고 평이잇는 인삼은 아즉도수용에다 공급하지를못한다 생산증가에 로력하야 수용에대한 공급을유감업시할것이며 품질향상에 로력하야 금산인삼에대한 성가가영구히지속되고 더욱 널이퍼지도록할것이니 그보조긔관으로 매년에품평회를 개최하야 품질의 우열 금그비평안을 조장시키며장려금을시상하야 항상긴장한 마음이잇도록할것이다

現商權을排除 外來財閥排除

江界商務會長 金泰義氏談



평북의거읍이요 관서의 웅주인 강계(江界)가발전하랴면여러가지방책이잇겟지만제일상권옹호(商權擁護)이문제는일반이잘생각하고 특히얼마전에 귀보에도 보도된바와갓치 우리강계의상권은 제이의송도(松都)의 칭을 듯는이만치 루대를두고 우리손으로 진겨서전혀외래의손에 지하지아니하고 건설한것인데 金만철도개통을 압두고 연선각재벌은 강계상권을 우리손에서 빼앗고저 획책하고 잇는것은확실한것입니다 직접당면에 선사람은 소용업는경쟁을치우고 서로제휴하야외래의 대재벌을 격퇴할힘을 가져야할것이외다 혹은 현재강계에잇는 굴지의상인이모히여 상사회사(商事會社)나 도생산긔관(生産機關)가튼힘잇는조직체를마드는것도필요하겟지요 그럿케하야 우리의판로를 일치안코 나가면 내고향강계는 우리손에서발전하여갈것이외다 ◇寫眞…金泰義氏

幼年主校生 孤兒院에寄金

【馬山】 마산부신정(新町)에잇는신정교회(新町教會)에서경영하는유년주일학교(幼年主日學校)어린이들은 오즉그순정에서나오는 동정으로 지난이십오일 크리쓰마스성탄 긔념일에모힌헌금(獻金)오원을다가조혼어린이로서 그처지와 환경이불상한 고아단 어린이들의 선년마지에써달나는 간곡한 편지와함께지난이십구일 보내왓다는바 이순정에 고아들의날뛰는것은 보는자로하여금 눈물겨웁게 하얏다한다

地方人事

▲吳鉉燮氏(宜川金融組合長)先大夫人二十七日正午老衰病院서別世 三十日午前九時宜川邑川南洞自宅發靷

▲盧銘世氏(本社宜川支局長)三日間豫定으로 二十九日平安道地方에向發

龜浦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普惠醫院 劉章漢 年賀除禮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甲山病院 趙來炳

東萊郡龜浦面龜浦里 藥種貿易 濟生堂乾材藥局 主 文昞祚

東萊郡龜浦面華明里 土木建築請負業 尹行龍

東萊郡龜浦面龜浦里 大泉酒造合資會社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慶一精米所 孫致浩

東萊郡龜浦面龜浦里 龜浦穀物商組合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申鉉斗商店

東萊郡龜浦面華明里 楊培根

東萊郡龜浦面龜浦里 龜浦面事務所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株式會社慶尙合同銀行龜浦支店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穀物商 薛慶海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穀物商 金晋坤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穀物商 孔周鉉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穀物商 金容璨

東萊郡龜浦面龜浦里 穀物商 金宗斗

東萊郡龜浦面龜浦里 伏金酒造場 金赫祚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普校長 長濱常輝

金海郡大渚面出斗里 金豪致

金海郡大渚面出斗里 穀物商 裵命俊

金海郡大渚面大地里 大渚面協議員 高光烈

金海郡大渚里出斗里 土木請負業 宮田八十七

金海郡大渚面出斗里 有志 趙璟來

東萊郡沙上面毛羅里 天一ゴム工場

東萊郡沙上面毛羅里 セメント瓦工場 朴詠煥

東萊郡沙上面德浦里 沙上面長 張志厦

東萊郡沙上面德浦里 沙上公普校長 山口環

東萊郡沙上面掛法里 醫生 李圭華

金海郡大渚面 大渚面事務所

金海郡大渚面出斗里 龜浦契販賣組合長 大渚消防組頭 大橋太一

金海郡大渚面大地里 司法代書人 金演台

金海郡大渚面沙德里 司法代書人 洪起彦

金海郡大渚面沙德里 洛東酒造合資會社

金海郡大渚面出斗里 有志 尹大殷

金海郡大渚面平江里 穀物商 具禎會 趙萬守

金海郡大渚面出斗里 洛東青年訓練指導員 北川柳次郎

金海郡大渚面平江里 穀物商 尹成萬

金海郡大渚面沙德里 沙斗酒造場 金武[illegible]

金海郡大渚面平江里 穀物商 高漢柱

金海郡大渚面平江里 醫生 高熙柱

金海郡大渚面沙德里 醫生 崔羽見

釜山榮町一ノ二八 貨物自動車部 文世顯 電一九三二

金海郡大渚面出斗里 大橋農場 大橋平市

水原

水原驛前 利殖多松種苗 紀念植樹庭木類 其他園藝類一般 生産販賣 八山農園 尹達容 電話二三三番 振替京城一七六四〇番

水原邑南門外 水原釀造株式會社 電話二二四番

水原邑山樓里 中央石鹼製造所

水原驛前 共濟無盡株式會社 水原出張所 電話三〇五番

水原邑南水里一八四 華城興產株式會社 電話三〇〇番

水原邑南門外 水原商會 金學培 電話一二二番

水原邑南門外 東一印刷所 尹泰仁 電話一〇〇番

水原邑南門外 株式會社 第一社 社長 梁奎鳳 專務 李光鉉

水原城內 中央印刷所 朴一龍 電話三三二番

水原城內 中原商店 主 韓禮錫 電話二八番

雲田

京義線雲田驛前 玄米調製 穀物貿易 木材肥料 三合精米所雲田支店 發電略(ヤヤミ)又(三) 受電略ウンテン三コウンテン

京義線雲田驛前 穀物貿易 玄米製造 雲南商會

京義線雲田驛前 濟亨精米社 雲田穀物部支店

京義線雲田驛前 石拔玄米 穀物貿易 濁酒製造 義信商會

京義線雲田驛前 穀物 賣買 興龍商會 主任 金永[illegible]

京義線雲田驛前 穀物商 皮物商 安興商會 主 安炳哲

京義線雲田驛前 朝鮮總督府鐵道局 指定運送取扱人 ◎朝鮮運送株式會社 雲田代行營業所

京義線雲田驛前 鐵道貨物取扱穀物貿易 ○雲田運輸商事組合 代表 金鎔煥

京義線雲田驛前 司法代書人 李閏珪

京義線雲田驛前 精米製造業 並農具業 日新商會 方智鉉

京義線雲田驛前 玄米調製 穀物貿易 安益商會

金秉傑

沙里院

沙里院 良大專門業 西鮮良大店

沙里院 共樂館

沙里院 朝鮮日報沙里院支局 寫眞班 天德寫眞館 崔德亭

沙里院 東洋製絲工場

北栗面 柳璜赫

文藝

非常時 世界文壇의新動向 (三)

李軒求

純粹文藝의諸樣相

筆者는 現在歐米文學中 인텔리겐차-를 代表한 그들의 文藝運動을 便宜上 純粹文藝라고 命名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르조아文學이라고指稱되며 反動的인텔리겐차-의 文藝라고도 불너온다 또는新心理主義文學 主知主義、新浪漫主義文學 新古典 主義文學等의 名詞로도 代用될것이다.

이러한流派에 屬하는作家들의 文藝行動에잇서서 特別히 一九三三年的 非常時의新動向이라는것을 明確히 指摘할수는업다 이文藝運動은 勿論社會的 政治的關心에서 『全然超越』 하야獨自的世界에서만 苦悶 動搖 發展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이러한 外部的世界의 變轉에서 그外氣의 壓縮만에 머믈지안코 人生生活의 더깁흔 더넙흔 더自由로운 人生本質의形姿를 그文藝가운대 探索하랴는것이므로적어도이文藝는持續的으로人類生活의諸斷面과 諸內部에浸潤되야 이世紀의渾然한姿相을 把持하랴는 苦悶과 努力의結晶일것이다

그러면 이 **文藝運動** 의 昨今에 나타난 重要한 몟個의動向을 極히 平凡한觀察로서 叙述하기로하자

먼저 英國文壇의 全體의動向으로본다면 長編小說이 一九三三年에 特히 만히나왓고 그大部分이 歷史的題材를 或은過去或은 未來十年間이라는 時代區分으로 取扱한事實以外에 新心理主義乃至主知主義文學이 亦是 如前한새로운動向이라고 할것이다

이主知主義文學理論은 『티、에스、엘리오트』에서 그代表的理論을 차저볼것이다 米國에서 태여나 巴里 『소르본』大學을거처 英國『옥스포-드』大學을 마친 아직 『五十未滿』의文藝評論家인 그는 文學에잇서서무엇보담 傳統을 尊重한다 傳統을 尊重한다는말은 歷史的意識을 文學의世界에擴大식힌다는것이다 卽吾人은自己가生長한 그時代그民族만의文化領野에서 呼吸하고生活하는것이아니요『호-머』以來 歐洲文學全體를 通滿한 그傳統 그傳統이 同時에 自國의全文學과운데 同時的存在로 保全되며 또同時的秩序를 形成하는感情을 吾人에게 强要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엘리오트』에잇서서는 個性을超脫 又는個性의消滅을 論하야 『獨自性을』否認한다 그러타고個性의死滅을論하는것이아니요『自己固有的인것이非個人的인一般的인가운대서 混融 完成되여 더욱 豊富 擴大 進展되여 더욱더 非固有的이면서더욱더 固有的인』그러한 個性의消滅 又는 個性超脫을論하엿다

이러한 傳統의尊重과 個性超脫은 古典主義의 傳統尊敬과人間的 普遍的이라는 觀念과의接近을-發見할수잇다 卽古典主義의希臘文學傳統의尊重과人間의普遍的感情 自發的理性을秩序로서 規律하는 『그文學의』 方途를 『엘리오트』는 더한거름 現代的立場에서 論爲하엿다그러므로그는 自己自身을 古典主義者라고 自稱한것이다

이點은일이 佛蘭西의『포올 발레리』가詩論에잇어서 天來的靈感(인스피레-숀)을絕對로 否認하고 오직 詩의精神을 科學 中에도 數學的精確과 理知的瞑想에서 發見한그와 共通되는바가잇다

要컨대 現代 英佛의 主流되는 文學的動向은 人間의知性을 尊重 復活하랴는데잇고 이人間의知性은 오직 大典的傳統의 새로운認識에서 出發하라는것이다 그러므로 社會的現實이라는 『外部世界』의明滅하는動態에對한關心보담도 偉大한藝術의世界를 지내간 歷史的作品에서 求하랴하며 또그의 正當한繼承에서 새로운偉大한作品이 나온다는것이다 이것이 古典的精神에서 知性의發見과同時에 文學理論이主知的傾向으로 흐르게된것이다

아푸리카의女人武士

이女子는 아푸리카의딸로 이들族屬은아프리카諸族屬中에 第一强한族의女人이니 아프로全世界의女性은 이女子와가치 武裝하지안으면안되는때가 不遠할지도모른다

1934年文壇展望

作家自身의生活革命

創作의態度와實際 (4)

李無影

一九三三年度에 잇서서의나自身의 創作態度에 對한 先輩、同僚여러분의 忠言은 千篇一律的으로 智識이 缺如되엇다 勿論 그中에는 批評을爲한批評--다시말하면 批評文을 만들기爲한 批判家도잇기는햇스나 그評家의 評的態度야 如何튼、中庸을어든忠言中에서 나自身이 首肯할만한 **句節** 에는언제나 感謝하고잇스며 今後作家制作에잇서서도 그들여러분의 忠告를、저바리지 안토록最善의 努力을 다하려는誠意만은、일즉부터 가지고잇다。

지금 이자리서 나에게對한 **忠言** 의例句節을 引用하면林和氏는、家庭을보는눈으로社會를본다는 誤謬를指摘햇고(朝鮮日報七月創作評?)白鐵氏는、新東亞에서實際運動에倒한智識缺如를忠告하리라기보다罵倒한일이 잇섯스며 金基鎭氏는亦是新東亞十二月號에서金東仁氏는 每申에서、各各 다른表現으로 꼭가튼 나의未治을指摘하고잇다

이분들의 忠告에 對하여感謝하는한便 나는또한나로서 깨우친點이만타 卽 어떠한作家라도그自身이生活을營爲하고잇는그圈外에한발자욱도 나가지를못한다는것이다 卽 家庭을보는눈을 社會를본데에나의 作家로서의缺陷이잇는것도 아니오 **運動** 者에게서들기어 取材하는데에作家로서失敗한原因이잇는것도아니다。 이분들의忠言을綜合하고나自身이그동안늣겨온것과를 聯結시키어 생각할때 나의作品에 致命傷은 創作家로서의 未治에서 온것이아니다、人間的으로 루-즈한데 잇다는것을 發見하엿다。

生活 을 營爲하고 잇는태도이 이作者는 어떠한觀念--支配마데서 執筆한다고指摘한것은 至當하엿다。 그러고 나自身 그러하엿다。 좀더自由로운 構想으로 創作을한다면……하는 생각도 업지 안흐나 그러타고 後悔는하지안는다 내가 後悔하고잇는것은 金東仁氏의말한바 그러한 意味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營爲해온 나自身의生活態度다

生活 그것의 表現이作品化할때 비롯오 나의代表作이나오지 안흘가한다

三四年 첫날을 메칠압두고 붓을 가다듬다가깨우친 또한가지는 넘우도 批評에서로 잡혀섯다는것이다 作品을 中心으로 씨워지는 批評이아니라 批評文學(?)을成立시키기爲한批評에까지 一이關心한것이나의創作態度에넘우나큰 지장을 주어왓다는것이다

이러한 모든 過去의 잘못을 깨우처서 今後적어도 今年에는 나自身의 生活의表現에 注力하라는것이 나의態度다 이것이 또한 지금까지의生活態度를 바꾸어보겟다는宣言도 되어젓스면 한다 生活이 바꾸인다면 보는눈도 달리질것이오 보는눈이달너진다면 쓰는態度에도 間隔이 달려질것이다 잇는그대로를 써보자는것이 今後나의 態度다

創作 을쓰기爲한 準備生活을말리라素材를어드려헤되이街頭를彷徨치는決코안으라고한다作品을 製造하기爲하여努力하는代身 生活속에서 作品이비저질때까지 生活과싸워야할것과 作品制作을爲한 事物에對한 鑑賞態度를버리고 觀察한데서 作品이 튀어나게 努力해보겟다는데서만나의作家的生命은빗나리라고생각하고잇다

一九三三年…… 文藝年報 (4)

(評論)『孤兒圖의아이들』(報告文學-以上新階段二月)『秋田雨雀氏와 文壇生活二十五年』(紀念論文-朝鮮四月)『民族文學의問題』(論-朝鮮六月)『同伴者作家의引導問題』(評-中央六月)『藝術的遺産의 繼承問題』(論-新階段六月)『山村의나무꾼동무』(詩-新階段七月)『農民文學에대한過去의 誤謬』(評-朝鮮八月)『맑스主義者批評家의任務(論-中央九月)『雜誌『農民』一派의農民文學批判』(評中央十月)『[illegible]』(全線三月)

金東仁

『싱겁은봄의追憶』(隨筆-東亞四月)『雲峴宮의봄』(長篇-朝鮮四月) 『적막한저녁』(小說-朝鮮四月) 『中老의봄』(隨筆-新家庭四月) 『小說急告』(小說-第一線三月) 『新聞小說은엇더케써야하나』(論-朝鮮五月)『電車와女人』(隨-三千里九月)『祝願外一篇』(詩-新東亞十一月)『小說界의動向』(總評-每申十二月)『花下劍舞』(史譚-中央十二月)

金岸曙

『외천다말을마소』(詩-中央一月)『詩壇의回顧와展望』(評論-每申一月)『金노래』(詩-每申一月)『元朝歎新』(詩-新東亞一月)『모던風景』(詩-中央二月)『浦口의살구꼿』(詩-新家庭三月)『小包』(콩트-新東亞三月)『出世秘話』(隨筆新東亞三月)『十夜氏와養子』(小說-新東亞四月)『時體俗謠五篇』(詩歌-新東亞五月)『摘花四首』(詩-新家庭五月)『招待券』(小說-新東亞五月)『落花』(隨-新東亞五月)『水天의노래』(詩-新東亞五月) 『하눌은집웅우에』外一篇』(詩-카톨릭靑年) 『消遣四首』(詩-東亞七月) 『너름바다』(隨-朝鮮七月) 『麻雀』(詩-新東亞七月) 『투르게녜흐와우리文壇』(論文-東亞八月) 『머구리』(隨-新東亞八月『思鄕』(詩-新家庭八月)『汽車 (콩트-新東亞九月)『아낙네의一生』(詩-新家庭九月)『表現으로의技巧에』(感想-東亞十月)『流行歌詞管見』(論-每申十月)『가을十三題』(詩-新東亞十月)『燈臺』(詩-新家庭十月)『詩에어려운가을』(隨-每申十一月)『자연書표의生日을맏두고』(紀念文-中央十二月)『詩壇一年의回顧』(總評-每申十二月)『그래올소·누나님』(詩-三千里十二月)

金珖燮

『골스워디의略歷』(紹介)『四人』(譯小說-新東亞一月)『劇硏第三回公演을보고』(劇評-朝鮮二月)『골[illegible]吊함』(朝鮮二月)『中專北岳會의第一回公演을보고』(劇評-中央二月)『劇과民衆』(論文-文學타임스二月)『고양이』(隨筆-朝鮮三月)『獨白』(隨-新東亞四月)『戲曲·人間武裝』(論-東亞六月)『우리의演劇과外四劇의影響』(劇評-朝鮮七月)『夏季日記』(新女性八月)『가을올것는마음』(隨-東亞九月)『新劇과演劇의差』(論-朝鮮九月)『文壇貧窮과文人의 生活』(感想-東亞十月)『가을의斷想』(詩-新女性十月) 『脚本』『버드나무선洞里의風景』(論-東亞十一月)『劇專第二回公演『밤酒幕』을보고』(劇評-中央十一月)『晋秉公演『밤酒幕』을보고』(劇評-中央十二月)

黑人文學 니그로文學의成長 (四)

韓雪野

一六一九年以後 二百四十有餘年동안 말모할暗黑과荊棘의路를밟아온『니그로』는 南北戰爭(一八六一-一六五)이라는 커다란모멘트에이르럿다。그리하야 一八六三年 大統領命으로 黑人은해방되엇다。 그러나이것은다만形式上의問題에끄첫을뿐이다。

元來南北戰爭은 經濟學者의말과가티 노예를해방하기爲한正義의戰爭이아니라 實로 近代的인 製造工業과賃銀勞働을基礎로하기에至한北部의資本主義와 노예로동을 基礎로하든南部의半封建的農業經濟와의 衝突이엇다。그勃發도 **歷史的** 으로보아 必然不可避의것이엿고 그北部資本主義의制勝도 또한正常한歸結이라고하겟다그리하야賃銀勞働에基礎를둔 米國資本主義는自己에게不必要한농노는해방하엿지만 『니그로』에게勿論土地를保證하는것가튼 史上例업는破格的行動에出하엿슬理는萬無하다。

現在도一千二百萬의『니그로』中九百萬卽七五%가 依然南方의所謂黑人地帶에살고잇지만 그해방當時에는 거진全部(現今보다 人口가적엇지만) 가생각만해도 몹서리나는南方에그대로 머믈어잇지안을수업섯스니 이것은 **經濟力** 이發揮하는拘束力의가장顯著한表現의하나이라고할것이다。

엇재든 이리하야그들은依然極度의貧窮中에放棄되어잇섯다。南北戰後米國은 全面的으로工業化의時代를現出하엿스나『니그로』만은 例外로 부르조아的發展이 全然不可能한 특수경우에남아잇섯다。

이러케現實的인經濟的土臺가업는그들은 不可避的으로情緒的逃避와 宗敎的忧惚의 方面으로逸脫하엿다。生活은 苦로맛게보이지안코 地上은惡으로박게보이지안엇다。 괴로워못견딀지경이엇스나 **그生活** 을 버서날것을約束해주는 아모것도업섯다。스스로그生活을버서나라든行動은 모다効果업시까라젓슴을過去의體驗에서 그들은배이고잇다。 도라다보아도 내다보아도 오즉어둠뿐이엇다。 이러한中에서허매는 그들은白人의『樂園』을渴仰하고 『他界의光明』에魅惑되엇다。 『此世의 貧困』을 『來世의 [illegible]』에 對한 空想으로 送하려하엿고 『此岸의어둠』을 『彼岸의 太陽』에對한 空華로러칠수나업슬가하엿다。

따라서 그들의藝術은 現實逃避의 **空想的** 것이엿스며他界追求의 靈感的、敬神的것이되지안흘수업섯다 그들의『靈歌』는 그代表的것인데 그深度는 宗敎以上이다 그들의靈歌『十字街의死』를보면 그들은엇던主를 十字街에못박앗다

謹賀新年

海州

海州救世病院

海州救世療養院

瓮津鑛山 洪淳五

西鮮電氣會社 海州支店

黃海道金融組合聯合會

黃海道金融組合職員一同

黃海道食堂員一同

黃海道農會

海州邑東榮町 壽泉釀造場

海州驛前 五六商會出張所

海州邑北旭町 金景壽

海州邑廣石町 吳景煥

海州 劉壎榮

海州普成精米所 電話一四四番

海州邑南旭町 三成精米所 電話三六三番 一三九番

海州邑西榮町 西鮮精米所

海州邑南本町 平和醫院 電話三六九番

至誠齒科醫院 金鎬衡

海州邑鍾路 海州藥局 藥劑師 李濬澤

海州朝日醫院 電話一二七番

海州邑南本町 日新醫院 醫師 朴懿行

海州邑南旭町 中央醫院 醫師 金潤玉 産婆 岩下チトセ

海州金融組合

海州辯護士會

海州妓生組合

海州邑南本町 大正館 電話一四〇番

黃海道海州道立醫院

海州郡高山面 李斗泳

海州刑務所職員一同

海州公立學校敎員會

海州邑事務所

海州郡廳職員一同

海州邑本町 スミス帽子店 金汶植

海州邑南門內 天金堂 洪淳賢

茄佐面翠野市 吳星根

席洞面長 吳元東

桑林里面協議員 朴壽海

西邊面長 鄭在鎔

翠野里 梁在韶

茄佐面翠野市 吳四善

泳東面 鄭元奎

日新面長 吳景俊

靑龍面 朴永遠

泳東面 李學壽

靑龍面 姜福馨

昌新面 姜芭泳

靑龍面 李康範

錦山面 金殷泳

泉決面 李載鴻

鮮滿開拓延安農場 李明烈

海州邑[illegible] 日月洋服店 主 [illegible]

海州邑鍾路 安昌洋服店 電話[illegible]

海州邑北本町 壽產洋服店 電三五九番

海州東門通 東一洋服店

海州邑南本町 新興印刷合資會社 電話三三三番 代表者 韓鍵洙

海州邑道廳前 東明商會 主 崔昌文

海州邑鍾路 電光ラヂオ商會

海州邑南本町 カフエー銀河 電話三一番

海州邑南本町 海東商會

海州邑南本町 啓明社 電話二六九番

海州南門通 內外藥種貿易散賣 救命堂乾材藥局 主 柳昌龍

海州邑南旭町 黃海工作所 電話二五四番

海州邑南門通 黃海自動車商會 朴奎遠

海州邑北本町 字路商會 電話一九番

海州邑南旭町 西鮮旅館 電話三六四番

海州邑 五星旅館 主 李炳徹

海州邑西榮町七六 龍泉藥酒釀造場 主 李敏龍 電話三七九番

江華

森信汽船株式會社

江華釀造株式會社

森信汽船株式會社 重役 張元奎

吳仙姬 李東承 金學濟

三山公普校指導 三 喬桐公立普通學校

傳燈寺

吉祥面 尹斗赫

華蓋面 金在璜

洪在默

水晶面事務所

三山面事務所

良道面 李起春

三山面 高永相

江華郵便所 古川喜一郎

溫水里郵便所 金永植

江華焙器製造組合

金浦自動車江華支部 代表 朴禮秉

金容煥

柳成珪

義興

義興金融組合職員一同

義興産業組合

義興面事務所 職員一同

古老面會計員 黃五鉉

義興酒造株式會社

軍威郡古老面樂田洞 裵錫奎

山下豊記

李光宰

古老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山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古老面事務所 職員一同

山城面長 李泰晋

신년을마지하는

부모의지도문제

—금년한해에는 무엇이고 한가지씩을하게하십시요

◇신년을마지하면서 긔자는귄조선오백만 귀여운우리어린이를 대하야 이런말을새해의인사말슴으로드렷습니다 즉『금년한해를뜻잇게가지자 뜻잇게가지기위하야 금년한해에무엇이고 한가지일을하자 그러고금년일년에는 이러한일을하겟다고새결심을하자』이런말슴을 우리사회의 장래의주인공인조선어린이에게드렷습니다 그러고이에관해서 어린이의직접교양과 지도의 책임을가지고게신일반 가정에게 한마듸말슴을드리려고합니다◇

새해가 되면 학교에서는선생이 아동에게또는신문잡지가 그독자에게 대하야새해를마지하엿스니 이러한결심을하고이러이러한일을하라고격려하고지도를게을리지안습니다 그러나잘때나깰때나직접어린이를대하고 이를직접지도할지위에잇는그아버지와 형님또는 그어머니가 새해를 마지할때 그자제에대해서 구체적(具體的)지도를하는것을 듯지못하엿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도를하는사람이 권연업다는것은 아니나 긔자는아직 그러한말을 듯지를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가정에서 부형이 그자제에게 주는 직접간접의영향이크다고하는것은 다사말할것도업거니와 긔자는이제새해를 마지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여워하고 존경하는 오백만 어린이에게 말슴드린것을 다시 일반가정에게 되푸리하고십습니다 일반어린이에게 대해서는 금년한해에는 무엇이고가장필요한일을 꼭한가지하도록 새결심을 가지자고 하엿지마는 어린이는 이것을 실행하기까지에는 대단히 어려운일입니다 그리유는다름이아니라 어린이는 새해에 새결심은하기는쉽지마는 그러나 어린이는 아직경험과 판단력이적긔때문에 파연무엇을해야 가장조흘가를아지못하는 까닭에어떠한 일을해야하는 그일을모르는까닭에 생각은하지마는결국은 구체적결심을 못하게되는경우가 십중팔구라고 안할수업습니다 부형이나 어머니의 지도와조언(助言)은 이러한때에 어린이에대한 젓(乳)이되고 자우(慈雨)가 될수잇다고 생각합니다

◇ 귀여운 자제를 가진여러분! 당신의귀여운아들 딸의성질과 재조와결점을 잘아시는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말슴을 간절히 드리고십습니다 먼저 당신의귀여운 아들딸의 년령과 성질과 재조와 결점을 잘살피고 그재조를 조장(助長)하며 결점을 업시하기 위하야 또는 한가지 재간과 한가지 지식을 엇게하기 위하야『너는 금년에이러이러한일을 한가지 꼭하도록해라』하고 그한가지일을 구체적으로지적(指摘)해주기를 바라고십습니다。 그것은 직접그어린이를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는그형이 아니고는 할수업는까닭입니다 특히보통학교이상학년내지 오학년에 다니는자제를 가진분에게 이러한말슴을올리고십습니다 그러고 부형되시는여러분은 금년한해는 나의딸과 아들에게──만일될수잇스면 한번더나아가서『우리』의아들과 딸에게── 이러한 한가지 유익한 일을하게하겟다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과깃붐은 오로지 우리의 장래의주인공인 어린이에게달린바만키때문입니다。(끗)

入選童話

순이와빵장사 (4)

羊兒 盧良根

『넌、무얼그리케보고섯니?』

순이가 정신업시 홍식의 뒤모양이 보이지안을때까지 서서보고섯는데 그제야겨우소로부터 도라오시는 어머니의목소리가 들리엿습니다。순동이는 먹든빵을 땅에떠러트리고 『엄마!』하고반색을 하엿습니다。

『그런데、어머니 오늘은 웨 그리늣즈섯서요?』

『이달치、집세를 마자해노아야겟기에 쌀멧되를더골느느라고 그랫고나! 그새순동이가얼마나울엇지!』하고그어머니는순동이를 안아다가땅에떠러저 구는빵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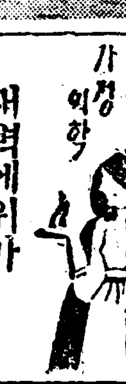
『그런데 이애가 웬 빵떡을 먹다떨구니?』하고 퍽의아한듯이 물엇습니다。순이는홍식이의 형세와 돈이십전준이애기를하엿습니다

『홍식이가?……그애도 필경학교를못다니고야마는구나! 오늘벌어오는돈하고 농속에너어뒷든돈하고모으면이달치집세나되긴하겟다만──어쨋든 잘햇다! 홍식이가우리에게는 그러케고맙게굴고공부도잘하드니……아무커나 잘햇다──』하고 어머니는말하면서땅에굴러떠러진빵을 집엇습니다。(끗)

『애견(愛犬)구락부』

상을바든 『크텍크레이•슈어싱녹군』……영국 수정궁에서열린 애견구락부의 제칠십이회전람회에서 애견구락부일등상을 바든픽스•테리아라는 종류의 개와 우승컵입니다

가정의학



새벽에위가 쓰립니다

문 이십삼세의 미혼남자 입니다 년전부터소화불량증이잇습니다 그리 과하지는안코나 근일에는 아츰여섯시경이되면 위(胃)가아프지는안코 쓰리며 괴로워서누어잇슬수가업고 일어나면진정됩니다 그리고 변비는귀측적으로매일잇습니다 어떠케면 아츰에위가쓰린것을 고칠수잇습니까 (沙里院一生)

답 만성위장염가튼것입니다

중탄산나토리움 二、○○
지아쓰다—제 一、○○
겐찌아나말 ○、三○
가제마구네슘 ○、五○
차초산창연 一、○○
로도에기쓰 ○、○三

우일일량 일일분삼식후삼십분복용 (醫學博士 任明宰)

謹賀新年

尙州

尙州郡內公立學校職員一同

尙州邑新町 各種料理 永樂館 主 李貞淑

李初月 李香月 許春子 李香玉 李初玉

尙州邑仁鳳 趙誠允

尙州郡化北面職員一同

尙州郡外西面 鄭東曉 鄭在敏 方光浩 全榮熙 林龍壽 金五乭

尙州邑本町 中央齒科醫院 李鍾奭 朴東厦

尙州土曜俱樂部

咸昌産業組合 理事 金漢翊

咸昌市場 綢緞布木 和洋雜貨商 權二萬

咸昌面職員一同

青里面職員一同

咸昌市場 綢緞布木 和洋雜貨商 金漢苾

咸昌市場 綢緞布木 洋服雜貨 各種衣類 金漢午商店

切城面職員一同

內西面職員一同

尙州郡內西面南長里 南長寺

牟西面職員一同

尙州郡化東面仙橋里 李鎭珪

尙州郡化東面以所里 日新酒造場 崔濟樹

化西面職員一同

恭儉面職員一同

尙州邑西町 朝鮮日報社尙州支局 支局長 柳馨佑 總務 柳慶佑

咸昌酒造組合

沙伐酒造場 主 鄭成鎭

咸昌穀物商組合

尙州郡中東面梧上里 金鳳一 (藝名小鳳)

尙州邑養院 米穀商 金季敎

天道敎尙州郡宗理院 院長 黃信五

洛東金融組合 理事 鄭學基

外南面職員一同

中牟市場 米穀貿易商 金致水

洛東酒造組合

中東面長 金時德

中牟市場 米穀商 黃復周

牟西酒造場 金順朝

化東面職員一同

銀尺面職員一同

恭儉酒造場 林一雄

尙州郡利安面中村里 酒造場 金鍾碩

利安面職員一同

尙州郡利安面 雅川酒造場 金聲鎬 李大奉

尙州邑西町 志方勝夫

慶北線青里驛前 △山一運送部 黃一鎬

慶北線青里驛前 穀物商 尹大五

青里酒造場 金元出

玉山金融組合 理事 須田篤

中牟金融組合 理事 李相冕

牟東面職員一同

中牟市場 穀物商 蔡相沃

中牟市場 牟東酒造場 夏

中牟市場 司法代書人 金正信

尙州郡化東面板谷里 李鍾培

咸昌金融組合 理事 趙範錫

尙州郡外西面愚山里 鄭德默

尙州邑市場 朴容勳商店

尙州邑內 蒲生嘉藤治

尙州邑本町 三省醫院 金

尙州邑東門通 鮮一藥房

尙州邑本町 綢緞布木 洋品百貨 永信商會

尙州邑東門通 理事 一陽軒

尙州邑新町 商山印刷所 黃在錫

尙州邑西町 合資會社 栗村酒造場

尙州邑西町 料理 大成館 朴順西

尙州邑西町 崔尙善酒造場 電話三二番

尙州邑西町 濟正醫院 朴正紹

尙州麯子組合

尙州米穀商組合

化寧市場 申彰燮

鐵嶺

鐵嶺敷島町 精米精粟 特産物貿易委托 朝鮮精米所 代表 李昌楠 電話長六一五 第二工場 鐵嶺大手町二丁目 取引銀行 朝鮮銀行 出張代理店 奉天、四平街 新京、哈爾賓

鐵嶺大手町 綢緞布木 西洋雜貨 鞋帽皮靴 批發零納 泰昌商店 主任 張吉元 電話長五〇四番

鐵嶺北五條通 鐵嶺金融會 理事 胡聖泰 電話八〇五番

鐵嶺敷島町 法庫小米 總代理店 信益商會支店 主任 李奉柱 電話長三七八 本店 開原

鐵嶺大手町 華興醫院 主任 李日煥

鐵嶺大手町 各種靴皮(고무)鞋 帽子及雜貨商 福興商店 主任 趙應默

鐵嶺 鐵嶺朝鮮人民會 會長 張宇根

滿洲鐵嶺大手町 綢緞雜貨 各種靴鞋 及靴皮莊 一般批發 永信商會 電話長一〇一番

鐵嶺敷島町二丁目 精米精粟 貿易委托 東昌洋行 主任 金貞默 電話長五一五

鐵嶺廣裕大街 飯莊 玉海樓 主任 黃金堂

鐵嶺南町 朝鮮料理 永春館 主任 許梧

鐵嶺南町 平壤麵店 主任 劉濟泳

東昌洋行 金德雲

鐵嶺北五條通 共益精米所 李用錫

鐵嶺南町 穀物貿易 委託賣買 德一號精米 主任 吳敬烈 電話長五五二

鐵嶺朝日町 領袖 李昌濬

鐵嶺朝日町 梁在沃

東昌洋行 外務 盧時昌

鐵嶺南町 驛前勤務 李鳳殷

鐵嶺驛 勤務 李元泰

朝鮮精米所 張天浩

朝鮮精米所 書記 朴泳鎭

回春醫院 金龍巖

朝鮮精米所 第二工場 機械手 朴奎觀

朝鮮精米所 機關手 李枝花

國際運輸會社 社員 張致明

鐵嶺金融會 書記 張道信

鐵嶺朝日町 咸配永

鐵嶺敷島町 鐵嶺朝鮮人民會 書記 白奉基

謹賀新年

金浦

金浦邑內 合資會社 金浦自動車部 代表者 明珍錫

金浦警察署長 岡田忠雄

金浦郡廳

郡內面事務所職員一同

陽西面事務所職員一同

黔丹面事務所職員一同

霞城面事務所職員一同

陽東面事務所職員一同

大串面事務所職員一同

月串面事務所職員一同

高村面事務所職員一同

陽村面長 沈相悳

金浦公立普通學校

陽川公立普通學校

陽谷公立普通學校

黔丹公立普通學校

大串公立普通學校

霞城公立普通學校

通津公立普通學校

京畿道會議員 李懿鍾

金浦農場長 海掘太一郎

陽東面協議會員 支配人 南廷彩

陽東殖産株式會社 支配人 大谷健介

陽川水利組合 職員一同

金浦邑內 朝鮮料理 明月館

金浦邑內 朝鮮料理 金浦館 柳順鳳

牛渚書院 院長 沈永澤 理事 鄭洛鉉

高村面協議會員 玄㝡運

金浦郡月串面軋江里 鷄興織物組合 閔樂基

霞城面石灘里 權爾玉

金浦郡陽谷市場 天一酒金浦支店

金浦金融組合理事 朝倉一彌

穀物檢査所金浦出張所 中土甚造

金浦煙草販賣所 林房太郎

金浦邑內 司法代書人 金敬欽

金浦邑內 司法代書人 吳馴泳

金浦邑內 斗密商會 朴一陽

金浦邑內 金元釀造場 鄭行兒

金浦邑內 金浦釀造場 趙謹來

金浦邑內 中央商會 方性逸

金浦邑內 廣信商店 李夏淳

金浦邑內 玉泉商店 蔡景玉

金浦邑內 一心商店 金重默

金浦邑內 金浦精米所 李炳斗

金浦邑內 己成商店 李馨熙

金浦邑內 有志 吳順基

佳村復興會長 朴奎遠

月串面城東里 有志 琴載淳

金浦普通學校評議員 申義均

月串面開谷里 有志 孫炳燦

霞城面後平里 有志 金奭濟

霞城面麻谷里 有志 李建澤

郡內面雙龍里 李載根

陽川支所副理事 兪哲濬

霞城面 霞城商業組合

黔丹面協議會員 權學圭

黔丹面協議會員 李貞夏

陽村面水路里 金東極

大串面協議會員 劉永德

霞城面峯城里 有志 閔泳旭

金浦旅館 金龍文

伊川

伊川郡伊川邑 伊川郡廳員一同

伊川郡塔里 和一醫院 盧和鎭

伊川郡鄕校里 伊川郡學校教員一同

伊川郡龍浦面淸岩里 伊川警察署員一同

伊川郡龍浦面淸岩里 伊川郡龍浦面職員一同

伊川面鄕校里 伊川金融組合

伊川郡伊川面泉岸里 伊川水利組合

伊川郡伊川面鄕校里 金松商會

伊川郡伊川面泉岸里 崔奎煥

伊川郡鄕校里 司法代書人 金仁寬

伊川郡鄕校里 伊川面 電話五番

伊川郡鄕校里 穀物肥料雜貨商 金宇一

伊川郡鄕校里 尹教炳

伊川郡伊川面塔里 伊川釀酒組合 長 金寅泳 電話二五番

伊川郡伊川面鄕校里 伊川邑牛市場 仲介人一同

伊川郡伊川面鄕校里 李昌燁

伊川郡方丈面佳麗里 伊川郡方丈面 職員一同

伊川郡伊川面塔里 新復藥種 金星藥院 主任 金時星

伊川郡伊川面鄕校里 菊花農場 主任 方漢春

伊川郡鄕校里登記所員 金春植

伊川郡伊川面鄕校里 金性洙 電話二二番

伊川郡伊川面鄕校里 東亞商會 主任 韓日東 電話二七番

伊川郡伊川面鄕校里 道議員 宋奎煥

伊川郡伊川面泉岸里 伊川金融組合長 鄭寅順

伊川郡伊川面鄕校里 新興百貨店 主任 金相則

伊川郡伊川面鄕校里 伊川郵便所長 手塚貞助

伊川郡伊川面鄕校里 綢緞布木商 李弘植

安邊

安邊郡鶴城面內石橋 中原安邊金山

安邊邑內 安邊公人俱樂部

新芽面公須田里 綢緞布木 米穀雜散 賣買金貸 入用日雜貨 元興公益商會 主 李元赫 李亨植

安邊邑內 京城屋食堂 崔敬雲 朴榮春

安邊邑內永春里 姜根弼

安邊郡安道面比山里 金昌鐸

安邊邑內 鶴城釀酒所 金淳吉 全寅燮 崔泰煥

安邊郡鶴城面石橋里 黃相哲

安邊邑內 海東醫院 朱東燮

安邊邑內耶穌教會 黃材淵

安邊郡安道面比山里 金鴻稷

安邊郡安道面比山里 金昌濬

安邊郡鶴城面美峴里 李基燦

安邊郡文山面 釋王寺宗務所

安邊邑內 李奎錫商店

安邊邑內門內里 冷麵 代書業 李厚植

新芽面下濟里 黃井金山事務所

安邊邑內 飲食店 劉泰仙

安邊邑內 東海商店

安邊邑內 半島自動車部 黃南永

京元線安邊驛前 朝鮮運送 安邊營業所

安邊邑內 代書 黃鎭律

安邊郡安道面比山里 金鴻涓

安邊郡安道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安邊郡鶴城面上花山里 崔載律

安邊郡鶴城面美峴里 申敬相

納稅額으로본 大田邑의經濟相
『朝鮮人은日本人의 十三分之一에不過』

【大田】 조선의 어느곳을 물론하고 조선사람의 재산정도는 나날이 주러가고 일본사람의재산정도는 느러만가는것이 현실 조선의 보편적사실이어니와 대전읍(大田邑)과가티 비참하게 된곳은 조선인의부력이 주러가는곳은업슬것이다! 대전이 남조선의 교통중심이니만치 나날이화려한 도시로 변하여가는터이나 이것역시 조선인을위한 발귀은 조금도 업다가보다 화려한도시로변함을따라 조선사람은 시가지밧그로 몰려만가는 현상이다 대전읍(大田邑)에다 납입하는 각종세금(各種稅金)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비교하야 보면 일본인은 총호수 일천 팔백십구호인데 부담액이 사만륙천사백사십륙원이니 일호당 이십오원 구십칠전식이 되고 조선인호수는 오천이백십칠호에 겨우 일만일천구백륙십팔원밧게 아니되니 일호당 이원삼십전식밧게 아니되는 비참한비교를 보이게 된다하니 조선인의 재산정도는 어떠한 고경에처하야 잇다는것을 능히 알수잇슬것이라고한다

長城黃龍面에 假刑事出沒
賭博場을大膽히襲擊
◇前科五犯者의行狀

【長城】 지난이십사일오후십일시경에 가형사가출현하야 전남장성군 황룡면옥정리(全南長城郡黃龍面玉井里)진순택(陳順澤)의집도박장을 습격하엿든바도박군들은 전부도망하여 버리매 가형사는 그후삼사처를습격하엿스나 별조흔일이 업슴으로동리김우선(金宇善)의집에 드러가 天밥그릇삼사개를 가지고도망하엿다는 소식을듯든 장성서에서는 비상히활동한결과 익일인 이십오일오전일시경에 장성역부근에잇는 현명옥(玄明玉)방에서체포하야 취조를한결과 전라도삼범사긔일범 강도일범의공한으로 징역팔년을 살고지난곽월경에 출감한자라는데 본다니는자라하며 관명사칭(官名詐稱) 폭력행위가택침입처 도등으로 취조를밧는중 공범이잇는듯하야 엄중한취조를 밧고잇다는바 홍한의소지품은 회중전등형사의모층 형사의수첩등이 잇스며 가장하는물품으로는 구두수선기구 매약행상도구를 가진홍한이라고한다

連谷公普校의 設立費募集完了

【江陵】 강릉군연곡면에공립보통학교를 설치하라고 면장강태흥(姜泰興)씨이하유지다수가 공립보통학교 긔성회를 조직하고 설비비 모집에맹렬한활동을 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간각위원들의 맹렬한활동의 효과가크게잇서 당초에계획하엿든 설비비의 모집이대략종요되엿슴으로 불일간 설치인가원를 제출할모양인데 금년도내에 인가될모양이며 개교는금년도신학기부터될터이라고한다

文白公普校의 位置가問題

【鎭川】 진천군월촌면중에문백면(文白面)에만 보통학교가업서 만흔 유감을늣기든중 보교설치문제가 일어나자 설치희망이 잇슬듯도하더니 돌현위치 문제로말성이 되여고대하든 문백공보설치도 저망의비운에빠지게되엿다는바 일반은크게 유감으로생각하는 동시에 진천군의일면일교제실현도희망이업다고한다

進永松本氏의壯擧
萬餘圓債權拋棄

【進永】 경남진영에사는 송본(松本)씨는 진영지방에서 수십년이래로 부근 각면동리에서 음료수(飮料水)문제로 고통을 밧고잇는 동리마다 일일히경비를독담하야 우물(井戶)를 파서 주민의 위생을도앗스며 그외에 극히 빈한한사람들의 호세등공과금(戶稅等公課金)을 대납하야 그수의 다수의자선사업을 하여나려오다가 근년에참혹한 재해를당하야 그날의생계를 하지못하는권군에 산재하여잇는 채무자삼백구십팔호에대한일만일천원의채권을요사이에탕감하여버리엿다는데 경남도회의원으로당선되야 도회가열릴때마다 모참석하야 바든 려비잔부를수업료(授業料)를내지못하야 곳쫏겨나게잇는 보통학교아동들의수업료를대납하야 일반채무자에의 빈곤으로진영면에서는 긔념석비를 세웟스며진례면(進禮面)에서는 동면송정리(松亭里)에다가긔념비를건립하얏다한다

把撥分局主催
氷上競技開催

【把撥】 함남풍산(咸南豐山)은산지대임으로 모든것이뒤진데따라 더욱이 체육관념이박약하다 본보분국은 이러지를일반애장려 보급하기위하야 조정원(趙貞元)씨등의 활동으로지난이십오일 아동을중심삼아파발압경에서 제일회 스켓트안출방대회를 개최하야 대성황리에폐회되얏스며 압호로는 빙상협회를조직하야 철저히 장려할여고유지리정원 리창수(李昌守)趙良元는제씨가 방금준비에분망중이라고한다

本社讀者優待 【鏡城】

본보경성지국에서는 오는 새해를 긔하야에독자재씨에 대한봉사의하나로써 우대권을 발행하야일반독자가정에 제공하고저 금내경성병원김병우(鏡城病院金炳羽)와 승암사진관리제직(勝岩寫眞館李濟稙) 량씨와교섭한결과 본보를 특히사랑하는의미로 모다쾌락을어덧슴으로 오는정월일일부터 우대권을 발행하게되엿스니 본보애독자 제씨는만히 리용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診療規定◇
一、診察料、藥價及手術料 一般處置料는半額
二、有効期間은一個月間正月末日까지
三、有効期間에는幾回라도使用함
四、入院時는特別割引함

◇寫眞割引規定◇
大中判 四圓五十錢을三圓五十錢으로 中判 三圓五十錢을二圓七十錢으로 間判 一圓七十錢을一圓으로 小判 一圓五十錢을 八十錢으로 名刺判 八十錢을六十錢으로

南原郡水旨面의 新任面長을排斥
他面居住者任命햇다고
三百名連署陳情

【南原】 다면거주자를면장으로임명하얏다하야 남원군 수지면(水旨面)에서는면민이단합하야지난달말경에 면민대회를 열고 십여인을선정하야 남원군수에게 질문한뒤목적을 이루지못하고 공직자등이 계속사직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 사직한공직자들을 해면주재소에 소환하야혹은 량해를어더 사직서를 철회시키는등 혹은끗끗내불응하는자는 본서까지소환되야 량해를구한다는등 여러가지로위무에 로력해왓스나 하등효과를엇지못하고 그대로불안에싸여오는바 지세이니 련야제이니 납세성적이 떠뒤에비하야불양하다하며뿐만아니라지난이십칠일에이를어해면유개리삼백여명이 련서하야 아래와가튼진정서를 도에제출하얏다는바실로 이문제가 아정되기까지는 제반행정상 막대한지장이잇스리라하야 일반은 주목중이라고한다

(陳情書省略)

今日의라듸오

第二放送 一月五日(金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〇時五〇分 俗謠 金芙蓉
一、孔明歌
二、배다락이
三、寧邊歌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流行歌)
◇同六時〇分 童話 토끼비 崔泳柱
◇同六時二五分 新春講演 正初行事와甲戌年 李乘岐
◇同七時〇分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佛樂 印度歷 安恩院
◇同八時〇分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沈淸傳 沈淸이離別하는데 金素姫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레코-드音樂
絃樂四重奏 C長調
第一樂章 아다지오 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테 칸타빌레
第三樂章 미뉴엣트 알레그로
第四樂章 안레그로 몰토
◇同九時 連續古談 春重春(二) 朴寅成
◇同九時三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翌日日로

一月五日(金曜)『新年宴會』

第一放送 (波長三三三米)
◇午後〇時五〇分(東) 新年少年少女大會 一日比谷公會堂에서中繼一
(1) 行進曲「軍艦」 瀨戶口藤吉作曲
(2) 歌劇「流浪의處女」序曲 발루作曲
(3) 軍歌 武富海軍大佐作詞 江口夜詩作曲
吹奏樂 指揮 軍樂隊 指揮樂長 內藤淸五
獨唱 望月誠
바이오린獨奏 管絃樂伴奏 피아노伴奏 永谷義輝
童話劇 出演 東京童話劇協會
◇同六時 (名)童話劇 名古屋放送童話劇協會
◇同六時二五分 義太夫 花雲佐倉曙 淨瑠璃 竹本祖太夫
◇同七時三〇分(東) 太神樂 神樂調
◇同八時(大) 詩의朗讀 西條八十詩集에서 作曲朗讀 岡田嘉子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木村友忠
伴奏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作曲並指揮 橋本國彦
◇同九時(東) 歌謠曲
一、謠小唄…中山晋平作曲
二、港의灯…松平信博作曲
三、和洋合奏「奉祝曲」…村越國保編曲
四、勝太郎오케사…佐伯孝夫作詞
五、鴨綠江의詩吟入
六、萬歲音頭…中山晋平作曲
小唄 勝太郎
伴奏 日本빅터-管絃樂團 指揮 村越國保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四】
李巴村作 熊超畵

편지(1)

록엽의쫄과 나무들은 그푸른빗으로 풍성하게보엿다。 『아주까리』동리 비탈진 공동묘지를향하야 힌에지친듯이올라가는 장렬대(葬列隊)가보인다。 민장로의 죽엄이 무덤으로가는것이다。 아주까리나무라고는 그림자도 볼수업는이동리의 일홈이아주까리동리인것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시체뒤에는 정순이가 하얀소복을하고 딸어가고 그것테는 정순이가일보는 학교에서 학생대표로은 한영애라는 생도가 딸어갓다。

정순은 흘너내리는 눈물을손수건으로 씻스면서눈겨울엇다。 정순의몸에는 처음으로이 란 소박한옷이걸치고 발에는 처음으로 집신이끌려잇섯다。 수삼간을 떠러진뒤에는 교회의교인들과 동리人사람들수십명이 딸어오고잇섯다。 상여는 극히 질박하게 꾸몃스나 시골장례식으로는 째호화롭다할것이다。 딸어오는 여러사람들틈에서는 강상수 강박사를 발견할수가잇섯다。 강박사는 오십여리나되는곳으로 일부러조상하려온것이엿다。 그에게는 물론 부고도간일이업다。 다만 그날밤에와서정순과인사를하고 간일밧게업섯다。 강박사는 정순을 잘안다。 그가 경성 공회당음악회에서정순을본후 『저런녀자를 안해로삼엇스면!』 하고 공상해본일이잇다。 그후로 자조신문지상에올으는 정순을 몰래 흠모한일이잇다。 권번날 저녁만하드래도 정순의집이라기에갓든것이다。 그럿치안흐면 밤人중에단장을께트리고 불으는춤장은대개 거적하여버리는 강박사이엿다。 강박사는 민장로의병만고치곳는날이면 정순의호감을살것을허망하엿다。 밤을 환자겨테서밝일수밧게업다고 스스로내정하면서와닷든것이다。 마는 막 와서보니 임이가우려진목숨이다。 그살에다가주사침이래도 곳첫다가 침끗이빠지면서 숨이끈어진다면 정순의호감은커녕 원망만살컨맛을런지 모르는일이엿다。 『정순을 안해로삼엇스면─』하고 막연하게 공상하는것은 또다시 이번 민장로의죽엄을 기회로 불길가티 소사오르는 생각이엿다。 강박사、눈압에는 오늘 정순이의얼굴이 한층더어엽브게 보엿다。 울고난후의 정순의얼굴은 어린애티가보이고 첩업는티가보엿다。 더구나 아모렷케나입은 상복이 더욱 어엿버슨것이다。 『소복을입은 천사여!』하고 강박사는 속으로늙엇다。 그러나 그는 다른사람의눈이 무서워서 정순의 것을밧삭따레가지못하고 여러사람들틈에 끼워든것이다。 오후두시나되엿다。 민장로의시체는 무덤속으로 들어갓다。 뉴불게붉으는 찬송가와함께서울서온생도는 붉은꽃 하얀꽃노란꽃을 고요히 관우에덥헛다。 정순은 몸부림을치며울엇다。 그의눈에서 떠러지는 수저가든눈물이 새로일우어노흔 흙덤이우에 굴러내렷다。 흙을메주고 분봉을쌋을때까지도강박사는 떠나가지 안코 잇섯다。 『선생님 날이저문데 돌아가세요』 하고정순은 말햇스나 구지 사양하고 목사와 영애와 멧교인과 도정순이와함께 끗까지둘아보앗다 정순은『이상한사람』하고 강박사를 대하엿다

謹賀新年

全州
全北道食堂員

全州郡廳

全州邑事務所
邑會議員一同

全州
金融組合聯合會

全北道會議員
副議長 姜完善

全州七曜會

全南白手支全北 全州邑豐南町布敎所
布敎師 郭石城

全州多佳町
鄭運得

全州邑大正町
辯護士 李愚軾

全州
李金順 白奎桓 李應魯 白南泰 趙岡熙

上關面事務所
九耳面事務所
雨林面事務所

總督府指定
全州新興學校
金宗東 羅基龍 朴魯弘 張斗男 黃根洙

全州高等女學校
全州女子高等普通學校
全州紀全女學校
全州初等學校職員一同

全州大正町 紙文具 寫眞材料
中外書院
內外 昭紙
完興泰紙物商會
主 陳相庸
電話三三四番 振替一〇四七九番

全州邑本町
百紙商會
主 [illegible]
電話五二三番

全州邑豐南町
全州麵子合資會社
尹吉重 鄭寅哲 尹錫熙 尹甲重 林圭鉉
電話六三八番

全州大正町 綢緞 布木
李仁基商店
全州大和町 李仁基商店南門支局
主 李仁基
電話三一九番

全州大和町
白鳥商會
主 金石培

全州
金容大

全州警察署

全州
西門外敎會

全州專賣局職員一同

鄭碩謨

全州大和町
平安醫院
宋重燁

全州
米穀商組合

全州農業學校

全州幼稚園

高山齒科醫院
醫師 高漢俊

全州
趙南石 尹亨珍 張煥澤

全州本町一丁目市場通
綢緞布木 雜貨販賣
平和商會
主 宋泰燁

全州驛前
大和運送店
李秉元
電話三〇番

全州邑本町
大昌紙物商會
電話六五四番

全州邑多佳町一〇五
產婆 吳金珠

全州邑
共和 自動車商會

全州高砂町
湖城旅館
電話五六三番

全州高砂町
豐城旅館
電話三六一番

全州高砂町
湖南旅館
電話六二二番

全州邑大正町
朝鮮料理 全豐館
電話四四八

全州本町一丁目
綢緞 布木
梁泰完商店

全州本町二丁目
製莚 和洋雜貨
永昌社
電話四六九番

全州本町二丁目九三
東亞藥房
主 金允錫

全州本町
南鮮 紙物貿易商會
主 柳重鎬

全州本町
樋渡宗俊商店

全州南門通外
米穀 委託
共益社
主 金海天
電話五六八番

全州[illegible]町
永豐商會
主 朴宜登
電話四三九番

全州邑本町
永昌紙物舖
主 姜文永
電話五三四番

全州邑本町
朝鮮紙商會
主 崔寅性

參禮

全北益山
宋象圭

益山郡春浦面[illegible]亭里
崔鳳來

益山郡春浦面[illegible]亭里
精米業 李承玉

全北參禮
柳謹玉

王宮面事務所

益山郡春浦面[illegible]亭里
精米業 尹成執

參禮
朴俊喆

參禮面事務所一同

全北參禮駐在所
鈴木三郎

參禮昭和會

王宮水利組合
朱炳雨

春浦面
春浦酒場
鄭俊謨

參禮面
黃斗賢

參禮面
柳永昌

全州南門通
綢緞布木
順昌商會

全州南門內
金一洋靴店
主 金昌模

全州邑大和町
南一堂
主 朴甲[illegible]

參禮面
參禮酒場
權日用

全北參禮
李謙昱

王宮面都巡里
李鍾澤

參禮保安組合
李根洙

鳳翔產業組合

參禮合同運輸合資會社
電話十六番

全北參禮
蘇仁永

全北參禮
崔錫天

全北益山
洪淳熙

全北參禮 參禮湯
田義鎭

全北參禮
洪淳熙

益山王宮面
蘇華永

益山郡王宮面東村里
宋治武

益山郡王宮面光岩里
林太平

謹賀新年

江陵

永明合資會社 社長 金永河
綢緞布木部 自轉車及附屬品部
本店 江原道注文津港 (電話一六番)
支店 江原道江陵邑本町 電話三一番 振替京城一六一二四番

つちやたび株式會社代理店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江原道江陵邑本町九番地
月星印地下足袋類 米豆雜穀、鹽 海産物 委託賣買
本田米市商店江陵出張所
海産部 江原道江陵旭町魚市場前
本店 江原道江陵郡墨湖津
出張所 江原道高城郡長箭

江陵邑錦町 劉明順

江陵邑 文房具商 普文堂 主 李昌培

江原道江陵邑 江陵合同酒造株式會社 電話本店一五六番 販賣部一一〇番

江陵邑 伊知地種雄

江陵郡廳職員一同

江原道會議員 崔準集

江陵印刷組合 組合長 曺圭常 主任 崔燦允

江陵旭町 岩本鐵工所 電話一二三番

釜山日榮ゴム江陵支店 三井物産關東州代理店 支店長 朴琮守 江陵邑本町

江陵邑 崔嶸昇

江陵木曜會

朝鮮郵船會社 朝鮮汽船會社 江陵取扱店 木村回漕店

江陵電氣株式會社

朝鮮江原道江陵郡注文津港 江原道鰮油肥製造業 水産組合

江陵郡學校評議員 韓昌愚

墨湖漁業組合 組合長 徐炳律 理事 盧秉銘 書記 崔舜潡 書記 金澤起

江陵トラック作業組合

丸江自動車合資會社 社長 丸田裕三

朝鮮特産物合資會社 代表者 堀江勝一 江陵本町電話六二番

江原道江陵邑本町 江陵婦人商會

江陵邑大正町 崔命圭

注文津郵便所長 土方武人

江陵郡新里面長 崔燦翊

注文里漁業組合

注文津金融組合

三陟漁業組合

三陟邑 燒酒業 三星酒造組合 電話二七

襄陽郡農會

羅州

羅州邑 金石斗

羅州邑 羅州精米所 鄭世勉 電話二一番

羅州公立農業實修學校職員一同
羅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羅州邑事務所職員一同
榮山面事務所職員一同
旺谷面事務所職員一同
潘南面事務所職員一同
公山面事務所職員一同
洞江面事務所職員一同
細枝面事務所職員一同
茶道面事務所職員一同
鳳凰面事務所職員一同
南平面事務所職員一同
山浦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面事務所職員一同
老安面事務所職員一同
三道面事務所職員一同
平洞面事務所職員一同
本良面事務所職員一同
多侍面事務所職員一同
文平面事務所職員一同

南平

精米業 姜奉化

南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鳳凰公立普通學校長 一宮正則

本良水利組合職員一同
平洞水利組合職員一同
多侍小利組合職員一同

茶道面楓山里 洪起膺

細枝面五峯里 金宗鉉

旺谷面新院里 黃龍基

在倉料 金喆洪

公山面令谷里 李載煥 鄭金鍾

多侍面永洞里 李啓善

道德市 ゴム靴商 吳正根 代書人 姜明奎

古幕院 錦南金融組合支所 職員一同

鳳凰金融組合 職員一同

羅州邑 鄭迥集

羅州邑 羅鎰山

羅州邑 崔升煥

羅州邑 鄭迥喆

榮山浦 文正周

榮山浦 岩津保次

鳳凰面 安芳鉉

金川面 金啓南

山浦面 金咸伍

山浦面 張翰洙

本良面 李彰錫

公山面 朴魯錫

旺谷面 林勳澤

鳳凰面竹石里 酒類製造業 徐桂洙

羅州郡廳職員一同

羅州郡農會職員一同

羅州警察署職員一同

榮羅金融會

羅州邑 許永奎

羅州邑 朴奉一 朴奉述

羅州邑 全南道會議員 丁基哲 電話一〇六番

羅州邑 鄭安民

羅州邑 金內現

羅州邑 許國香

羅州邑 湖南醫院長 金明濟 電話五八番

羅州邑 孫洪洙

旺谷面新浦里 崔榮哲

羅州邑 李漣泰精米所 電話六三番

細枝面五峯里 李仁釆精米所

洞江面辰泉浦 朴東奎精米所

洞江面辰泉浦 靑成錄精米所

羅州邑 酒類製造精米業 李昌洙 電話一〇八番

羅州邑 寶泉酒造場 朴用錫 電話三三番

老安面錦洞里 錦泉酒造場 李三洙

道德市 天馬山藥酒英浦特約店 三本酒造場 吳演根

洞江面仁洞里 淮類製造業 崔萬化

潘南市 酒類製造業 羅夏集

旺谷面長山里 酒類製造業 姜福致

南平市 酒類製造業 南平酒造會社

羅州邑 洋品雜貨 羅州協同商會 電話六五番

羅州邑 繩叺買賣 羅州商會 電話六九番

羅州邑 一印刷所 梁癸元 電話五九番

羅州邑 羅州印刷所 田榮錫 電話五一番

羅州邑 中央印刷所 梁榮夏 尹貴奉 電話二九番

羅州邑 羅州醫院長 姜奇卿

羅州邑 綢緞布木 永信商店 金泳允

羅州邑 綢緞布木 同昌商會 安成容

羅州邑 綢緞布木 和成商會 徐炳允

羅州邑 精米業 李載英 電話一〇七番

羅州邑 運輸業 丁斗鉉 電話五六番

羅州邑 金上鉉

榮山浦 榮山醫院長 崔翼鴻 電話一〇七番

榮山浦 全南繩叺株式會社 社長 鄭淳玉 電話六八番

榮山浦 南鮮商會 朴章煥

南平 丁奎俊

榮山浦 司法代書人 吳天一

榮山面寓谷里 榮山浦産業組合 電話五四番

榮山浦 玄鍾植

榮山浦 橫城運輸組 曺士元

榮山浦 司法代書人 金敬洙

南平 金漢燮

榮山浦 東拓榮山浦駐在所 河村卯吉

榮山浦 朝鮮料理 榮樂館 金炳五

南原

有志 李東器

有志 柳圭鉉

南原病院長 金聖弼

南原郡廳職員一同

南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獒樹金融組合已梅出張所 副理事 鄭完喆 書記 金應星 書記 金大日

南原産業組合 理事 金在旭外職員一同

南原邑事務所職員一同
朱川面事務所職員一同
水旨面事務所職員一員
豆洞面事務所職員一同
金池面事務所職員一同
帶江面事務所職員一同
二白面事務所職員一同
王峙面事務所職員一同
已梅面事務所職員一同
室節面事務所職員一同

全北道議員 徐慶吉

南原醫院前 東京屋洋服店

慶全線南原驛前 運送 倉庫業 貿易 委託 ㊀南鮮運輸株式會社 電話三八番 振替口座京城二〇三八番

洋藥販賣 共樂堂藥房

全北道議員 辻護一郎

醫師 河龍鐵 鐵道病院

南原邑裁判所側 司法代書人 韓相鉉

東面歸政寺 主持 裵晶淳

尹在俊商店 電話一七番

南原寫眞館 尹相喆

뽀스寫眞館 晉在修

喪中大轎 黃永權

大和洋服店 主 朴容堯

南原邑下井里 崔斗七

南原邑下井里 米穀檢查所 主任 阿部小八

南原邑雙橋里 群山旅館

南原邑市場通 起盛商會

玉果堂藥局 李性浩

新興時計店 金日善

南原邑雙橋里 高山齒科醫院分院 主 趙秉錫

南原精米所 柳淳權

奉天

奉天十間房 協濟公司

奉天十間房 三省膠皮工廠

奉天十間房 月刊雜誌 靈光社

奉天西塔大街 池錫模

奉天十間房 洪淳文

奉天十間房 三光旅館 主 鄭辰洪

奉天西塔 美滿洋服店

北市場普通學校

西塔幼稚園

奉天聖經學校 校長 李斯器

朝鮮예수敎長老會 滿洲宗敎協會

奉天西塔 精米雜貨 順興商會

奉天西塔 大昌運送店

奉天十間房 現代靴店

奉天西塔 金剛旅館

奉天小西關 委托業 大昌號

奉天西塔 大興精米所

奉天西塔 三葵膠皮公司

奉天西塔 半島商會支店

奉天西塔 朝鮮旅館

奉天西塔 大東旅館

奉天西塔 金炳泰

奉天十間房 三正洋行

奉天十間房 食料雜貨 德昌號

奉天十間房 天一藥房

奉天西塔 南滿精米所

田乃豊

益昌商會 金應春

國際美術寫眞館 奉天小西邊門斗丹宮 一個月寫眞師養成 正月入學者宿食費免除

奉天西塔 大同洋行

奉天西塔 三義洋行

奉天西塔 奉天膠皮公司

奉天十間房 李應奎

奉天北市場 尹商源

奉天西塔 崔龍洙

奉天西塔 金聲亨

奉天西塔 黃元憲

奉天柳町 尹喜炳

奉天木曾町 朴承薰